

석사학위논문

한·몽 머리 부위 관용어 대조 연구

-한국어 교육적 측면에서-

2013년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문남식바트바야르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선옥

한·몽 머리 부위 관용어 대조 연구

-한국어 교육적 측면에서-

The research on comparing Korean and Mongolian idiomatic
expressions

(Idiomatic expressions related to parts of head)

-Korean language education-

2013년 6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문남식바트바야르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선옥

한·몽 머리 부위 관용어 대조 연구

-한국어 교육적 측면에서-

The research on comparing Korean and Mongolian idiomatic
expressions

(Idiomatic expressions related to parts of head)

-Korean language education-

위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6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문남식바트바야르

문남식바트바야르의 문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한·몽 머리 부위 관용어 대조 연구

-한국어 교육적 측면에서-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문남식바트바야르

본 연구는 한국어와 몽골어의 머리 부위 관용어를 대조하여 양국 관용어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찾아내 몽골인 학습자들에게 대조를 활용한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관용어는 그 나라의 제반 역사 문화를 담은 표현이다. 먼 옛날부터 관용적으로 쓰여 온 구성 어휘의 합이 아닌 제3의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독특한 표현이다. 한국인 모어 화자들이 실생활에서 수많은 관용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며 자기 의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관용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외국인 학습자들은 이러한 학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인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긴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정확한 이해와 완벽한 언어 활용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관용어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각 언어권 학습자들에게 맞는 교육 방안과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의식에서 출발하여 연구를 하였다. 1장 서론 부분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살피고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2장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관용어 교육 그리고 관용어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기술하였다. 관용어의 개념은 관용어를 연구하는 학자에 따라 정의를 서로 다르게 다루고 있었지만 관용어에 대한 모든 정의는 서로 공통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기존에 선행 연구에 제시된 관용어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간략하게 기술하

고 그 중에서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통용되는 의견들을 바탕으로 관용어의 정의와 특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관용어는 먼 옛날부터 관용적으로 쓰여 온, 그 나라의 역사, 문화를 담은 굳어진 표현이다. 두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구나 절로 이루어진 구성요소의 의미가 아닌 제3의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독특한 표현이다. 관용어의 특징을 의미적 특징과 동사적 특징의 면에서 살피고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한·몽 관용어를 대조하여 그에 따른 대조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어 교육 교재 중 3종 교재와 관용어에 관한 2종 책을 선정하여 머리 부위 관용어를 중심으로 목록을 정리하며 머리 부위 관용어 98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관용어를 몽골어 관용어와 대조하여 A, B, C, D유형의 난이도가 서로 다른 관용어 목록을 제시하였다. A유형에 속하는 관용어는 양국 관용어를 대조했을 때 의미와 표현이 서로 비슷한 관용어이다. 그만큼 학습하기 쉬운 관용어로 학습 난이도를 예측하였다. B유형에 관용어는 의미는 비슷하데 표현이 일부분 다른 관용어로 A유형보다 학습이 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본다. C유형에 속하는 관용어는 의미가 비슷하데 표현이 전혀 다른 관용어이다. 표현이 다를수록 학습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A유형에 관용어를 단순한 대조만으로 이해시킬 수 있지만 C유형에 관용어는 문화를 많이 담고 있어서 학습이 그리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 D유형에 속하는 관용어는 한국어에만 있는 관용어이다. 본 대조를 통한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로서 D유형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본장에서 이러한 유형에 맞는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안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한국어 관용어를 머리 부위 중심으로 하다 보니 또 다른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관용어들이 목록에서 빠진 것들이 있다. 또한 외국인 학습자들이 학습하기 힘든 D유형에 속하는 관용어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 아쉬운 점이다.

【주요어】 관용어, 신체 관련 관용어, 머리 부위 관용어, 몽골어 관용어 대조.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제 3 절 선행 연구 검토	3
제 2 장 한국어교육에서 관용어 교육	5
제 1 절 관용어의 개념과 특징	5
제 2 절 관용어 교육의 필요성	14
제 3 장 한-몽 관용어 대조를 활용한 교육 방안	16
제 1 절 한국어 교재의 머리 부위 관용어	16
제 2 절 한-몽 머리 부위 관용어의 대조 분석 및 교육	22
1. 관용어 대조 분석 방법	22
2. 한-몽 관용어 대조와 교육	26
제 4 장 결 론	60
【참고문헌】	62
ABSTRACT	66
몽골어 요약 (х у р а а н г у й)	69

【 표 목 차 】

[표 2-1] 관용어의 사전적 정의	5
[표 2-2] 관용어의 투명성 정도	11
[표 3-1] ‘말이 트이는 한국어’의 머리 부위 관용어	17
[표 3-2] 연세대 ‘한국어’의 머리 부위 관용어	17
[표 3-3] 경희대 ‘한국어’의 머리 부위 관용어	18
[표 3-4] ‘살아 있는 한국어 관용어’의 머리 부위 관용어	19
[표 3-5] ‘관용어100 속담100’의 머리 부위 관용어	20
[표 3-6] 머리 부위 신체별 관용어 목록	20
[표 3-7] 대조의 난이도 분류 방법	22
[표 3-8] 관용어 대조 분석에 따른 난이도 등급	24
[표 3-9] A유형 관용어의 수업 개요	31
[표 3-10] A유형 관용어의 학습 지도안	31
[표 3-11] B유형 관용어의 수업 개요	45
[표 3-12] B유형 관용어의 학습 지도안	45
[표 3-13] C 유형 관용어의 학습 지도안	53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한국과 몽골은 1990년 3월 26일에 수교를 맺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를 전공으로 하거나 한국을 찾는 학생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몽골 대사관에 의하면 한국으로 유학 떠난 학생수가 2010년에는 3000명에 이르고, 2013년에는 5000명이 되었다고 한다¹⁾.

한국어와 몽골어는 서로 문장 품사와 어순이 비슷하기 때문에 몽골인 학생들이 처음에는 한국어를 쉽게 공부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러나 공부를 하다보면 모든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이 중급으로는 쉽게 올라가지만 그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문법과 어휘에 문제가 없지만 한국인과 소통을 할 때 유창하게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현실을 볼 때 몽골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이론 및 교수법 연구가 부족하고, 필요한 상태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의 목적은 유창한 의사소통에 있다. 유창한 소통을 이루기 위해 정확한 이해와 충분하고 완벽한 언어 활용이 필요하다. 한국인 모어 화자들은 실생활 속에서 수많은 관용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여 자기 의도, 표현 전달을 위해 상당히 많은 관용어를 자기도 모르게 사용한다. 하지만 외국인 학습자들의 경우 교실 내 수업에서 그런 학습을 하지 못하고 문법 중심으로 교육을 받고, 관용어는 이해하는 정도로 언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관용어를 알아보는 것만으로 멈추지 않고 모국어의 비슷한 관용어를 비교해서 그의 숨겨진 뜻과 문화적인 이해를 높이고, 구어에서 사용 시 그 문장 속 관련어들을 동시에 학습시켜야 한다. 기존의 문법, 어휘의 교육과 달리 학습자들의 특징을 고려한 유창한 의사소통을 위한 적극적인 관용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관용어는 특정한 뜻을 표현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습관적 사용으로 익숙해진 표현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꼭 학습해야 할 부분이다. 관용어는 그 범위가 아주

1) 주몽골대사관 교육문화담당

넓다. 그 많은 관용어 중 머리 부위 관련 관용어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왕배우(2009)²⁾에서는 관용어 사전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관용어는 인체와 관련되는 것이 가장 많고, 특히 머리 부위와 관련되는 관용어는 신체관용어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머리 부위 관련 관용어는 인간의 신체와 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인간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고, 양국어 관용어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 눈, 입, 코, 귀, 목의 머리 부위 신체 관련 관용어를 택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삼아, 한국어 관용어 중 머리 부위 관용어를 중심으로 보다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한국어를 배우려하는 몽골인 학습자들의 급중에 따라 이들의 어휘력 향상이나 의사소통의 면에서 관용어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몽골어권 학습자를 위한 관용어 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2장에서는 관용어의 개념 및 특징 기준의 선행 연구들을 통해 간단하게 기술하도록 한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에서 관용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본다.

3장에서는 한국과 몽골 관용어 대조 분석을 하고자 한다. 대조 분석을 하기 위해 우선 한국어 관용어 교육 목록을 선정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이며, 발행 또는 재발행 년도가 최근인 대학 한국어교육 기관의 교재 3종 및 〈살아있는 한국어 관용어〉와 〈한국어 관용어 100개〉 교재를 분석하여 관용어 목록을 선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선정된 한국어 관용어를 몽골어 관용어와 대조하기 위해 기존의 대조 방법들을 살펴보고, 몽골인 학습자를 위한 교육 방안을 제시할 때 적용이 될 수 있는 대조의 방법을 선택하여 분석을 하고 학습 난이도를 예측해 본다. 대조 분석과 난이도 분류를 거친 관용어를 몽골어권 학습자들에게 대조를 통한 관용어 교육 방안으로 보다 효과적인 학습 방

2) 왕배우(2009) 「한국어의 머리 부위 신체 관용어」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76 참조

안과 교수 학습 모형 그리고 대조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교수법, 접근 방법을 모색하여 현재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안을 구성한다.

제 3 절 선행 연구 검토

지금까지 관용어에 관한 연구를 보면, 국어학 측면에서는 물론 한국어교육학 측면에서도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언어권별로 특히 일본어와 중국어 대조를 통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몽골인을 대상으로 삼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몽골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용어에 관한 최초의 연구는 앵호사를(2003)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어와 몽골어 관용어 중 신체 관련 관용어를 중심으로 대조 연구를 했다. 한국어 교육적 측면에서 최초의 연구로 송현아(2008)를 들 수 있다. 송현아(2008)에서는 몽골인을 위해 한국어 관용어 중 무엇을 어떤 순서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이를 위해 한국어 관용어를 다음과 같이 3가지 기준으로 배열하였다. 첫째, 한국인의 관용어 사용빈도이다. 둘째, 몽골인의 이해도이다. 관용어를 어느 정도 인지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양국 관용어를 비교 대조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셋째, 구성 어휘의 난이도를 배열 기준으로 삼았다. 이 연구는 몽골인을 위한 관용어 교육 목록을 배열하는데 크게 중점을 두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몽골어 관용어와 관련 대조 사전으로 빠산자브락자-최기호(2004)의 「한국어와 몽골어 관용어 대조 사전」을 들 수 있다. 이 사전의 기본적인 체제는 한국어와 몽골어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이상에서 제시한 것이 몽골어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관용어에 대한 연구의 전부로 몽골인 학습자를 위한 관용어 교육 연구는 아직도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용어에 관한 국어학 쪽 연구는 선행 연구를 통해 보면 1970년부터 활발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왕배우(2009)에 의하면 70년 들어서 Hockket의 연구가 비판적으로 수용되면서 연구가 시작되었고, 주로 관용어에 대한 분류에 주력한다고 하며, 이시기에 대표적 학자로는 김종택(1971), 김문창(1974), 김규선(1978), 황희영(1977)등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90년 들어서 이전의 모

든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이론 연구가 주를 이루게 되었으며, 이 시기의 대표적 학자로는 강위규(1990), 김혜숙(1993) 최경봉(1992), 황수미(1994), 문금현(1996) 등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어 관용어를 몽골어 관용어와 대조하여 몽골인 학습자들에게 대조를 통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 대조를 통한 교육에 대한 연구로 다음 연구들을 선행 연구로 하였다. 주로 살핀 연구로는 이양금(2010), 왕지화(2008), 조뢰(2011), 김애진(2009), 누리갈리예바 아이굴(2008) 등이다.

이양금(2010)에서는 영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영 관용어 대조 분석을 하여 문화 차이 많은 영어권 학습자들에게 한국 문화 및 관용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과 교수 모형을 제시하였다. 조뢰(2011)에서는 한-중 관용어를 대조하고, 교재 분석을 통해 관용어의 교육용 목록을 배열하고 직접교수법, 의사소통중심교수법, 영상 매체 활용교수법, 협동교수법 등을 활용하여 한국어 관용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애진(2009)에서는 일본어권, 신헤인(2010)에서는 중국어권, 누리갈리예바 아이굴(2008)에서는 러시아어권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대조 연구를 하였다. 신체관련 관용어 연구로는 이연니(2011)의 한-일 신체어휘 관용어 비교 연구, 왕배우(2009)는 한국어 머리 부위 신체 관용어 연구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를 통해 몽골인 학습자를 위한 관용어에 대한 연구의 수가 많이 부족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제 2 장 한국어 교육에서 관용어 교육

제 1 절 관용어의 개념과 특징

본 장에는 한국어 관용어의 개념과 특징을 살피고 기술하도록 한다. 먼저 관용어의 개념을 살펴보겠다.

1. 관용어의 개념

몽골인 학습자를 위한 관용어 교육 방안을 연구하기에 앞서 한국어 관용어의 개념 및 특징을 살펴보겠다.

관용어는 관용어를 비롯하여 관용구, 관용표현, 속어, 익은말, 이디엄, 연어, 말뭉치, 비속어, 금기어, 은어, 격언, 속담, 고사성어 등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며 범주 설정 기준도 달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전적 정의와 선행 연구를 통해 현재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범주에서 그 개념과 정의를 기술하고 용어를 정의하도록 한다. 우선 관용어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 관용어의 사전적 정의

	사전	관용어의 사전적 정의
I	국어국문학 (1981)	1. 문법적으로 정상적인 이론적인 표현과는 다른 비문법적·의미론적인 관용적인 표현. 즉 형태론적 관용구, 즉 형태론적 관용어. 2. 문법적 구조는 정상적이지만, 그 각 구성요소의 의미들을 그대로 결합해서는 전체적인 뜻을 이해할 수없는 표현. 즉 의미론적 관용구.
II	새 우리말 큰 사전 (1989)	1. 일반적으로 습관이 되어 사용되고 있는 말. 2. 문법에 맞지 않으나 다년간 관습적으로 널리

		쓰이는 말로 보통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되어서 전체가 독특한 뜻을 나타내는 표현 등을 이른다.
III	언어학 사전 (1993)	1. 각 낱개의 단어들 의미의 총합과 다른 특별한 의미를 지닌 단어들의 연결. 2.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특별한 의미를 잃게 된다.
IV	국어대사전 (1994)	1. 일반적으로 습관이 되어 사용되고 있는 말. 2. 문법상 논리적으로는 맞지 아니하나, 다년간 관용이 되어 사용되고 있는 말. 보통 둘 이상의 단어가 으레 붙어서 쓰이는 것 또는 결합되어서 전체가 독특한 뜻을 나타내는 표현.
V	우리말 큰 사전 (1997)	습관상으로 쓰는 이은말(=관용구)
VI	국어대사전 (1999)	1. 보통 습관적으로 쓰이는 말. 2. 문법에는 어긋나나 오랜 동안 널리 관용되는 말
VII	표준 국어대사전 (1999)	1.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그 단어들의 의미만으로는 전체의 의미를 알 수 없는,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어구. 2. 습관적으로 쓰이는 말.
VIII	국어대사전 (2006)	1. 보통 일반에 관습적으로 쓰이는 말로, 문법이나 어법으로써 규정할 수 없는 말. 2. 문법상 논리적으로는 맞지 아니하나, 다년간 관용이 되어 널리 쓰이는 말.
IX	한국어와 몽골어 관용어 대조 사전(2004)	관용어는 일반적으로 습관이 되어 사용되고 있는 말이다. 즉 관용어는 어구나 한 문장이 그것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본래 단어 의미와 관계 없이 전체로서 또 다른 하나의 뜻을 나타내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널리 쓰이는 말이다.

관용어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 사전마다 관용어의 정의를 형태와 의미로 나누어 정의를 하고 있다. 그 중 『새 우리말 큰 사전』(1989)과

『국어대사전』(1994),(2006)의 정의는 다른 사전 보다 비교적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습관이 되어 사용되고 있는 말. 문법상 논리적으로 맞지 아니며, 각 구성요소의 의미로 전체 의미를 알 수 없는 제3의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독특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는 사전마다 관용어의 용어를 관용어, 관용구, 관용표현, 어구 등으로 여러 가지로 쓰고 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관용어의 정의와 용어는 통일 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김문창(2003)³⁾에서는 관용어와 관련 여러 권의 연구 및 자료를 분석하여 관용어 용어의 현황을 살폈다. 관용어의 용어는 용어를 다루는 시각이, 대범주-소범주 상위어-하위어 등등에서 서로 다르고 혹은 관용하거나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논자에 따라서 10여 가지로 사용되고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관용어와 관련해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가장 큰 세력을 확보했던 용어는 ‘관용어’⁴⁾와 그 다음으로 ‘관용표현’이 있다. ‘관용어’는 형태상으로는 구나 문장으로 표현되지만, 의미상으로는 하나의 단어와 대등하다는 의미 특성에 초점을 맞춘 용어이다. 예를 들어 ‘눈에 띄다(현저하다), 눈을 감다(죽다), 눈코 들 새 없다(바쁘다)’ 등이다. ‘관용표현’이라는 용어는 관용적으로 쓰이는 모든 표현들(속담, 고사성어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관용어’라는 용어는 속담과 고사성어는 제외하는 개념이다. 관용어는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달리 속담과 고사성어는 인용되는⁵⁾

3) 김문창(2003)에서는 간접연구 1천여 편을 제외하고, 관용표현 직접연구 논저 136편과 순수 사전 8종, 기타 어휘집 25종, 도합 169편의 논저가 있다고 하였다. 관용어의 용어는 학자에 따라 관용구, 관용어(광의), 관용어(협의), 속어, 속어표현, 관용어구(광의), 관용어구(협의), 익힘말, 익은말(광의), 익은말(협의), 관용적 표현, 관용표현(광의), 관용표현(협의) 등으로 불리고 있다.

4) 형재연(2010)에서 제시한 관용표현에 대한 다양한 명칭을 시대적 논의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용어: 김종택(1971), 이영희(1982), 박영순(1985), 박진수(1986), 홍미량(1989), 최경봉(1992), 김진해(1995), 오제운(1998), 고광주(2000), 황정아(2006)

관용표현: 강위규(1990), 문금현(1996), 박진호(2002)

속어: 김문창(1974), 심재기(1986), 안경화(1987), 강현화(1988)

5) 박진호(2003) 「관용표현이 통사론과 의미론」에서는 관용어는 ‘그만 해. 오늘 나 비행기를 충분히 많이 탔어’와 같이 직접적으로 사용된다면 속담과 고사성어는 ‘원수는 외나무다리

특징이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 제외한다.

앞선 연구에서 학자들의 관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전해영(1997)⁶⁾에서는 관용어란 때로는 비논리적이고 탈문법적이지만 대중성과 통용성을 지니고 관용적으로 쓰이는 그 나라 언어의 독특한 표현으로서, 통사론적으로는 두 개 이상의 의미소가 결합한 구나 절로 이루어지고, 의미론적으로는 기본 어휘나 문법으로서는 파악할 수 없는 특수 의미로 통용되어 제3의 단일한 의미를 가지고 은유적으로 화석화된 연쇄어군(articulated group)을 뜻한다.

정혜령(2007)⁷⁾에서는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한 구나 절로 이루어지며 새로운 제3에 의미를 창출한다. 오랜 기간에 걸쳐 언중들에 의해 습관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하였다.

앵흐사를(2003)⁸⁾에서도 관용어의 정의는 별 차이가 없다. 관용어를 구조적으로는 둘 이상의 요소로 결합되어 있고 그 뜻은 구성요소의 총합이 아니라고 본다는 점에서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신혜인(2010)⁹⁾에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언중들에 의해 습관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표현으로,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한 구나 절로 이뤄지며 구성 요소와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즉 제3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형재연(2011)¹⁰⁾에서는 관용표현이라는 용어를 쓰고, 관용표현은 한 나라의 언어 활동으로서 관습적 용어이다. ①조합된 단어의 합으로는 전체 의미를 알 수 없고 제3의 의미를 갖는다. ②관용표현은 형태가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된 단위여야 한다. ③통사적으로 굳어진 표현이어야 한다. ④'는 의미적 조건이며 ⑤는 형태적 조건에 해당된다. ⑥는 통사적인 측면에서 고려한 특성이라고 하였다.

서 만나다더니 너 오늘 잘 많았다'처럼 ‘-(고 하)더니’와 같은 인용 구조 속에 내포되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였다.

6) 전해영(1997).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어교육」.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9-10

7) 최권진·정혜령(2007).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 지도 방안」. 『한국어문화학』, 제7권 제2호 pp.11-13

8) 앵흐사를(2003). 「한국어와 몽골어 신체 관련 관용구 대조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7

9) 신혜인(2010).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 및 교육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9 참조

10) 형재연(201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어 교육 방안」.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3

지금까지 관용어의 사전적 정의와 학자별 정의를 살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관용어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관용어는 먼 옛날부터 관용적으로 쓰여져 온, 그 나라의 역사, 문화를 담은 굳어진 표현이다. 두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구나 절로 이루어진 구성요소의 의미가 아닌 제3의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독특한 표현이다.

2. 관용어의 특징

관용어란 표현은 각각 구성요소의 의미의 합이 아닌, 그 구성요소들이 합쳐서 또 다른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굳어진 표현이다. 따라서 그 구성요소의 하나를 다른 어휘로 바꾸면 그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관용어는 의미, 통사 면에서 다른 표현들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갖는다.

전혜영(1997)¹¹⁾와 신혜인(2010)에 따라 관용어의 특성을 의미적 특성과 형태적 특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¹²⁾

1) 의미적 특성

첫째로 관용어의 의미는 비합성적이다.

구성요소 개개의 합이 아닌 제3의 뜻을 지니게 된다.

(1) 영화는 이번 시험에서 미역국을 먹었다.

(2) 어제 밤에 아이가 아빠를 눈 빠지도록 기다렸다.

예문 (1)에서 ‘미역국을 먹다’가 단순히 ‘미역국을 먹다’는 뜻이 아니라 ‘시험에서 떨어졌다’는 관용적 표현으로 쓰였다. 예문 (2)에서도 ‘눈 빠지다’가 각각의 의미대로 ‘눈이 빠지다’가 아니라 ‘몹시 애타게 기다리다’라는 관용적 표현을 담고

11) 전혜영. 전계서. pp13-16 참조

12) 의미적 특성, 형태적 특성의 내용은 전혜영(1997)과 신혜인(2010)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며, 예문도 그에 따른다.

있다. 이처럼 관용표현은 구성성분의 의미가 아닌 제3의 의미를 나타내는 비합성적인 특징을 갖는다.

둘째로 관용어는 중의성을 띠고 있다.

중의성이란 하나의 표현이 둘 이상의 뜻으로 갖는 것을 말한다. 즉 관용적 의미인지, 일반적 의미로 쓰인 것인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는 문맥을 통해 그 뜻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

(3) 철수는 손이 크다.

(4) 참 기가 막히더라.

(3)에서의 ‘손이 크다’는 단순히 철수의 손이 크다는 것인지, ‘쌈씀이가 후하고 크다’는 것인지 예문만 봐서는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예문 (4)도 ‘어이가 없다’는 것인지, ‘매우 훌륭하다’는 뜻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때 문맥을 살펴봐야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다.

(5) 영애는 성격도 시원하고 손도 커서 맘먹느리감이다.

(6) 지난주에 그 집 냉면을 먹어보니 참 기가 막히더라.

예문 (5), (6)는 모두 관용적 표현으로 관용어의 중의성이 잘 드러나 있다. 이처럼 관용어는 상황에 따라 구성요소들의 합성적 의미, 즉 일반적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 관용적 의미로 쓰일 때도 있다.

셋째로 투명성의 정도이다.

관용어는 은유적 표현이 화석화된 것으로 본래의 직설의미에서의 유추가능성을 가지며 동시에 화석화된 정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문금현(1996)에 따르면 의미의 투명성 여부에 따라 불투명한 유형, 반불투명한 유형, 반투명한 유형의 3 단계로 나누었다. 최경봉(1992)에서는 의미의 투명성의 정도의 따라 근접투명, 반투명 반불투명, 불투명과 같이 4단계로 나누었다. 표로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표 2-2〉 관용어의 투명성 정도

정도성	용례
근접투명	기가 죽다, 눈이 높다, 돈을 먹다, 발이 넓다, 손이 크다, 손이 모자라다, 얼굴이 뜨겁다, 피를 이어받다
반투명	가슴을 펴다, 군침이 돌다, 눈이 뒤집히다, 등이 달다, 땀을 빼다, 머리를 깨다, 머리를 식히다. 뼈를 깎다. 뿌리를 뽑다, 애가 타다, 입이 벌어지다, 죽이 되다. 튀밥을 튀기다
반불투명	국수를 먹다, 그림의 떡, 누운 소타기, 누워서 떡 먹기, 도장을 찍다, 독 안에 든 쥐, 마당을 빌리다, 머리를 얹다, 보릿고개, 상투를 틀다, 식은 죽 먹기, 오리발을 내밀다, 쪽박(깡통)을 차다
불투명	공기를 놀리다, 귀 빠지다. 기가 막히다, 깨가 쏟아지다, 날이 새다, 눈이 맞다, 돌아가시다, 물을 먹다, 바가지를 긁다, 바가지를 쓰다, 바람 맞다, 비행기를 태우다, 살을 섞다, 시치미 떼다, 학을 떼다

이러한 관용어가 발화 안에서 작용하는 의미 기능은 차등을 보이지만 뜻이 언중들에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불투명한 것일수록 그 관용어가 비유적 의미는 돋보이고 관용어로서의 자격은 더욱 확고해진다.

넷째로 표면의 효과이다.

관용어의 의미적 특성의 마지막으로 담화에서 가지는 특별한 표현 효과를 들 수 있다. 관용어는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강조하거나 상대방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게 된다. 또는 단어보다 이해가 빠른 일상어로서 표현 효과를 높이려는 언중의 필요가 관용어를 생성해 내는 원인이 되기로 한다.

- (7) 어제 밤에 공포영화를 보고 너무 무서웠어요.
- (8) 어제 밤에 공포영화를 보고 간이 콩알만 해졌다.
- (9) 아내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고 있다.
- (10) 아내는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고 있다.

(8)이 (7)보다 한층 더 무서움이나 두려움의 감정이 고조되어 있고, (10)이 (9)보다 더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의도를 담고 있다. 이처럼 관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화자의 감정이나 심리 상태, 발화 의도가 잘 반영된다. 관용어로 나타내는 감정적 의미를 표현적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관용어는 직설표현이 갖지 못하는 감정 가치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2) 통사의 특징

첫째로 관용어는 구나 절의 형태를 지닌다.

일반어의 통사적 구조의 구·절 형태와 마찬가지로 관용표현도 둘 이상의 구성요소가 합쳐서 화석화된 구·절 형태인 통사의 단위이며, 보통 주어-목적어-서술어의 형태로 취한다. 또한 조사의 생략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다.

(11) 바람(을) 맞다 / 친구에게 바람을 맞았다.

둘째로 관용어는 대치의 제약을 받는다.

일반표현은 그 구성요소의 하나를 다른 낱말로 교체하면 그 관용적 의미도 완전히 잃게 된다. 그러나 관용어는 일정의 어휘들이 결합되어 굳어진 형식으로 나타나기에 다른 낱말로 대치시키면 그 관용적 의미도 완전히 잃게 된다.

(12) 바가지를 긁다

(13) 주걱을 긁다

예(12)에 보인 듯이 ‘바가지를 긁다’는 ‘잔소리를 하다’의 뜻으로 쓰이는 관용어이다. 만약 ‘바가지’를 ‘주걱’으로 교체하면 그 구성요소가 원래 가진 관용적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이다.

셋째로 관용어는 관형화 제약을 받는다.

관용어는 구성요소인 서술어를 관형화하면 보통 관용적 의미를 잃게 된다.

(14) 그는 나에게 비행기를 태웠다.

(14) 그는 나에게 태운 비행기가 크더라.

(13)의 ‘그는 나에게 비행기를 태웠다’는 ‘그는 나를 칭찬했다’와 대등한 뜻으로 쓰이는 관용어이다. 그러나 만약 ‘비행기를 태우다’라는 표현에 서술어인 ‘태우다’를 관형화시키고 (14)과 같은 형식으로 나타나면 관용적 뜻은 없어지고 그저 일반적 표현이 된다.

넷째로 관용어는 수식어 삽입의 제약을 받는다.

관용어의 구성요소에 수식어가 삽입하면 보통 그 관용적 의미를 잃게 되고 글자 그대로 해석되어지는 보편적인 문장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5) 지우가 미역국을 먹었다.

(16) 지우가 맛있는 미역국을 먹었다.

(15)의 ‘미역국을 먹다’는 ‘시험에서 떨어지다’와 대등한 뜻으로 쓰이는 관용어이다. 그러나 (16)에서 수식어가 삽입됨으로써 특정 의미를 지닌 관용적 표현이 되지 못하고 구성요소들이 원래 가진 의미로 해석되는 일반적인 표현이 되었다.

그러나 부사어 삽입으로는 관용어가 가진 의미가 변화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17) 지우가 미역국을 먹었다.

(18) 지우가 또 미역국을 먹었다.

(18)에서 부사어 ‘또’가 삽입되었으나 관용어의 관용적 의미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

다섯째로 관용어는 피동·사동의 표현의 제약을 받는다.

관용어는 피동·사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19) 지우가 미역국을 먹었다.

(20) 어머니가 지우에게 미역국을 먹였다./먹게 하였다.

(19)의 ‘미역국을 먹다’는 관용적 표현으로 쓰일 수 있는 반면에 (2)과 같은 경우에는 관용표현이 되지 못한다.

(21) 지우는 미역국을 잘 먹힌다.

위(21)에 보인 듯이 ‘미역국을 먹다’라는 관용어는 이와 같은 피동 형식으로 나타나면 더 이상 관용적인 표현이 되지 못한다.

제 2 절 관용어 교육의 필요성

문금현(1998)에서는 관용어는 그 나라의 제반 역사-사회-문화적 배경이 반영된 특수한 말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반 현상을 알지 못하면 관용표현에 대한 이해가 어렵고 관용표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의사소통에 큰 장애가 되어 완벽한 언어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하였다. 특히 외국인들의 경우는 다른 나라의 언어 습득에 있어서 관용표현이 가장 큰 장벽이 되고 있어 관용표현을 교재에 잘 반영해 주어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관용어는 생성 당시의 축자 의미와 유연성이 오랜 변천 과정을 겪으면서 상실되었기 때문에 축자 의미만으로는 그 뜻을 알 수가 없어 교육을 통해 습득할 수밖에 없다. 한국인 학습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관용어를 습득했지만 외국인 학습자들의 경우 교재에 나와 있는 관용어만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학습 양이 고급 이상으로 올라가도 의사소통 면에서 중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양금(2010)은 관용어는 일상 담화에서 자주 사용되며, 온갖 종류의 이야기에 사용되기 때문에 관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이야기의 줄거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육 목적에 달성하기 위해, 한국어에 관심 있는 학습자들을 위해 그 언어권별 체계적인 관용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외국인 학습자들의 경우 관용어의 말하기 능력이 전체 언어능력도 결부되어 적절하게 관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면 무미건조하고 상상력도 없다거나 너무 진지하고 사무적이라는 평판을 받게 되고, 많은 관용어를 상황에 맞게 활용하게 되면 언어 능력이 고급스럽게 똑똑한 외국인이라는 인상을 갖게 된다고 한다.

제 3 장 한-몽 관용어 대조를 활용한 교육 방안

본 장에서 한-몽 관용어 대조 교육을 위해 우선 한-몽 관용어를 대조 분석을 하고자 한다. 한-몽 관용어를 대조 분석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3개 한국어 교육 기관의 교재를 선정하여 교재의 관용어를 머리 부위¹³⁾ 관용어 중심으로 정리 한다. 다음으로 선정된 한국어 머리 부위 관용어를 몽골어 관용어와 대조하고 대조된 관용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학습의 난이도를 예상하며 이에 따른 교육 접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1 절 한국어 교재의 머리 부위 관용어

본고에서 검토할 교재는 현재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활용 중이며, 한국어 교재 발행 또는 재발행 년도가 비교적 최근인 2000년도 이후에 발행된 한국어 교재를 선정했다. 이는 관용어가 가지는 공식적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서, 발행 또는 재발행 시기가 비교적 최근인 교재에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는 관용어가 더 많이 반영되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선정된 교재는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의 <말이 트이는 한국어 1-5>, 연세대학교 한국어 학당 <한국어1-6> 경희대학교 <한국어>, 김선정 외(2008) <살아있는 한국어 관용어>, <한국어 속 답100개>이다.

1)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말이 트이는 한국어>

말이 트이는 한국어는 총 5권을 구성되어 있다. 귀에 대한 관용어 4개, 눈에 대한 관용어 12개, 입에 대한 관용어 9개, 코에 대한 관용어가 3개, 얼굴에 대한

13) 이경자(1991)에서는 신체어 분류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몸: 찔(찔 덩이, 살갓), 사마귀, 털.

동체부: 가슴, 첫, 배, 허리, 등, 궁둥이, 음부.

수족부: 팔(팔뚝, 팔목, 손, 손모가지, 손금, 손톱, 손등, 주먹, 손가락, 손마디), 다리(발, 발자국)

관용어 3개, 목에 대한 관용어 1개, 머리에 대한 관용어 1개 총 34개의 관용어가 있었다.

〈표 3-1〉 ‘말이 트이는 한국어’의 머리 부위 관용어

급수		관용어	총계
초급	I		
	II	귀가 가렵다[간지럽다], 귀가 아프다, 귀가 앓다, 눈을 감아 주다, 눈이 높다, 눈 앞이 캄캄하다, 입에 맞다, 입이 무겁다, 입이 짹다, 콧대가 높다, 코앞에 닥치다, 코에 붙이다, 입에 맞는 떡	13개
중급	III	제 눈에 안경, 귀에 거슬리다, 눈에 띄다, 얼굴에 써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하다, 입이 가볍다, 눈이 맞다, 입에 익다.	8개
	IV	한눈을 팔다, 낮을 가리다, 눈살을 찌푸리다, 눈이 어둡다, 눈에 부시다, 입이 빠르다.	6개
고급	V	고개를 숙이다, 두 얼굴, 목이 빠지다, 눈을 딱 감다, 한눈에 알 수 있다, 입맛에 맞다, 얼굴 들고 다닐 수 없다.	7개
총계			34개

2)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한국어〉

연세대 한국어 교재는 총 6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 귀에 대한 관용어 7개, 눈에 대한 관용어 23개, 입에 대한 관용어 4개, 머리에 대한 관용어 2개 총 36개의 관용어가 있었다.

〈표 3-2〉 ‘연세한국어’의 머리 부위 관용어

급수		관용어	총계
초급	I		
	II	입에 맞다	1개
중급	III	눈 코 뜰 새 없이, 길눈이 어둡다, 고개를 끄덕이다, 입이 가볍다, 눈에 맞다, 눈 깜짝할 사이에.	6개
	IV	고개를 숙여지다, 눈이 깜짝할 사이에, 귀를 기우리다, 눈에	11개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한 눈에, 한 눈을 팔다, 눈이 높다, 눈에 띄다, 눈을 뜨다,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다, 귀가 열리다.	
고급	V	눈을 반짝거리다, 귀를 달다, 입이 닳도록, 눈길을 끌다, 눈에 선하다, 눈 코 뜰 사이(새) 없다, 도끼눈을 하다, 입씨름을 하다, 귀에 못이 박히다	9개
	VI	눈이 부시다, 눈이 어둡다, 눈이 멀다, 눈을 감아주다, 눈 밖에 나다, 눈을 돌리다, 피 눈물이 나다, 눈 뜬 장님, 귀담아 듣다,	9개
총계			36개

3) 경희대학교 <한국어>

경희대학교의 교재는 1급부터 6급 까지 모두 6권의 교재로 구성되어있다. 머리 부위 관용어 총 30개 중 귀에 대한 관용어는 5개, 눈에 대한 관용어 12개, 코에 대한 관용어 2개, 입에 대한 관용어 6개, 목에 대한 관용어 3개, 얼굴에 대한 관용어 3개 있다.

<표 3-3> 경희대 ‘한국어’의 머리 부위 관용어

급수		관용어	총계
초급	I		
	II	입에 맞다	1개
중급	III	귀가 얇다, 눈이 높다, 입이 무겁다, 첫눈에 반하다, 콧대가 세다. 콧대가 높다, 입에 맞는 떡, 입이 가볍다, 귀가 가볍다.	9개
	IV	눈 감아 주다, 눈을 감다. 귀가 어둡다, 길눈이 어둡다, 눈 깜짝할 사이, 입맛에 맞다, 눈을 뜨다, 눈이 어둡다.	8개
고급	V	눈에 선하다, 눈앞이 캄캄하다, 귀에 못이 박히다, 한 목소리를 내다, 눈에 들어오다, 얼굴 들고 다닐 수 없다, 얼굴에 써 있다, 눈에 익다, 얼굴을 못 듣다.	9개
	VI	눈에 띄다, 눈을 돌리다, 목에 힘을 주다, 목이 빠지다	3개
총계			31개

4) 살아있는 한국어 관용어

‘살아있는 한국어 관용어’에는 머리 부위 관용어가 가장 많이 반영된 교재이다.

〈표 3-4〉 ‘살아있는 한국어 관용어’의 머리 부위 관용어

신체	관용어	개수
귀	귀(가) 아프다, 귀가 가렵다, 귀가 간지럽다, 귀가 났다, 귀가 얇다, 귀가 어둡다, 귀가 거슬리다, 귀에 못이 박히다.	8개
눈	눈 깜짝할 사이(에), 눈 밖에 나다, 눈에 띄다, 눈(을) 감다, 눈(을) 감아주다, 눈(을) 돌리다, 눈(을)딱 감다, 눈(을)뜨고 볼 수 없다, 눈(을) 뜨다, 눈(이) 높다, 눈(이) 맞다, 눈(이) 바지도록 기다리다, 눈도 깜짝 안 하다, 눈앞이 캄캄하다, 눈에 거슬리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눈에 들다, 눈에 밝히다, 눈에 불을 켜다, 눈에 익다, 눈에서 불이 나다, 눈 옛가시, 눈이 어둡다, 눈코 뜰 새 없다, 제 눈에 안경이다, 한 눈(을) 팔다,	26개
목	목(이) 빠지다	1개
얼굴	얼굴(을) 내밀다, 얼굴(이) 두껍다, 얼굴(이) 뜨겁다, 얼굴에 철판(을) 깔다	4개
입	입에 맞는 떡, 입에 맞다, 입에 침이 마르다, 입을 모으다, 입이 가뻐다, 입이 떨어지지 않다, 입이 무겁다, 입이 심심하다, 입이 짧다.	9개
코	코가 납작해지다, 코가 땅에 닿다, 코가 삐뚤어지다, 코끝이 찡하다, 코를 찌르다, 코앞에 닥치다, 콧대가 높다, 콧대가 세다, 콧대를 꺾다, 큰 코(를) 다치다, 내 코가 석자다.	11개
총계		60개

5) 한국어 속담 100, 한국어 관용어 100

한국인들의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관용어 100개를 선정하여 보여준 교재이다. 하지만 머리 부위 관련 관용어는 그리 잘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표 3-5〉 ‘한국어 속담 100, 한국어 관용어 100’의 머리 부위 관용어

신체	관용어	개수
귀	귀가 가렵다, 귀가 여리다, 귀에 못이 박히다, 귓등으로 듣다, 귀에 거슬리다, 귀를 세우다, 귀를 의심하다, 귀가 열린다, 귀를 달다.	9개
눈	눈에 넣어도 안아지 않을 만큼, 눈에 들다, 눈에 불을 켜다, 눈을 붙이다, 눈이 높다, 눈 코 들 새 없다, 제 눈에 안경이다, 한 눈을 팔다, 눈을 뜨다, 눈에 띄다, 눈을 딱 감다.	11개
입	입이 가볍다, 입이 짧다, 입에 침이 마르다, 입에 맞다. 입에 거미줄 치다, 입을 다물다, 입에 익다, 입에 오르다.	8개
코	내 코가 석자, 코가 납작해지다.	2개
총계		28개

지금까지 살펴본 대학의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발행한 3개 교재와 『살아있는 한국어』, 『한국어 관용어 100개』의 교재 분석 결과를 아래와 같이 신체 기관별로 제시한다.

〈표 3-6〉 머리 부위 신체별 관용어 목록

신체 기관	관용어	개수
머리	고개를 숙이다/ 숙여지다, 고개를 끄덕이다	2개
귀	귀가 가렵다[간지럽다], 귀가 아프다, 귀가 얇다, 귀에 거슬리다, 귀를 기울이다, 귀에 못이 박히다, 귀 담아 듣다, 귀가 닳다, 귀가 어둡다, 귀가 여리다, 귓등으로 듣다, 귀를 세우다, 귀를 의심하다, 귀가 열린다, 귀를 달다.	15개
눈	눈을 감아주다, 눈이 높다, 눈이 캄캄하다, 제 눈에 안경, 눈에 띄다, 한 눈을 팔다, 눈살을 찌푸리다, 눈이 어둡다, 한 눈에 알 수 있다, 눈 코 뜰 새 없이, 길눈이 어둡다, 눈이	39개

	깜짝할 사이에, 한 눈에, 눈을 뜨다, 눈을 반짝거리다, 눈을 딱 감다, 눈에 부시다, 눈이 멀다, 눈 밖에 나다, 눈을 돌리다, 피 눈물이 나다, 눈 뜬 장님, 눈에 선하다, 첫 눈에 반하다, 눈을 감다, 눈 깜짝할 사이에, 눈을 뜨고 볼 수 없다, 눈이 맞다, 눈이 바지도록 기다리다, 눈도 깜짝 안 한다, 눈독을 들다, 눈에 들다, 눈에 밝히다, 눈에 불을 켜다, 눈에 익다, 눈에서 불이 나다, 눈엣가시, 눈을 붙이다, 눈에 들어오다.	
코	코대가 높다, 코앞에 닥치다, 코에 붙이다, 눈코 뜰 새 없이, 코대가 세다, 코가 납작해지다, 코가 땅에 닿다, 코가 뻐뻐어지다, 코끝이 찡하다, 코를 찌르다, 코대를 꺾다, 큰 코를 다치다, 내 코가 석자다	13개
입	입에 맞다, 입이 무겁다, 입이 짹다, 입에 맞는 떡, 입에서 입으로 전하다, 입맛에 맞다, 입이 닳도록, 입씨름을 하다, 입에 침이 마르다, 입을 모이다, 입이 가볍다,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입이 심심하다, 입에 거미 줄이 치다, 입 다물다, 입에 익다, 입에 오르다, 입이 빠르다.	18개
목	목이 빠지다, 목에 힘을 주다.	2개
얼굴	얼굴을 내밀다, 얼굴이 두껍다, 얼굴이 뜨겁다, 얼굴에 철판을 깔다, 얼굴에 써있다, 두 얼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 얼굴을 못 들다, 낯을 가리다.	9개
총계		98개

왕배우(2009)¹⁴⁾에 따르면 머리 부위를 포함하는 관용어는 총 711개의 관용어가 있으며, 전체 관용어의 51.8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4) 왕배우(2009) 한국어의 머리 부위 신체 관용어 연구에서는 눈, 코, 귀, 입, 머리, 목 얼굴을 머리 부위 신체어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이 7개의 신체어를 다시 그 신체부위 자체와 신체 부위의 주변기관(눈썹, 눈알, 콧대, 콧전 등)으로 나누어서 머리 부위 신체 관용어를 선정하였다.

그 중 외에서 제시한 3기관의 교재와 <살아있는 한국어 관용어>, 한국인들의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국어 관용어 1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머리 부위 관용어 98개이다. 여기서 눈에 관한 관용어는 39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입에 대한 관용어는 18개, 귀와 코는 13, 15개로 비슷한 수를 보였다. 하지만 머리와 목은 각각 2개와 3개로 가장 적은 수를 보였다.

제 2 절 한·몽 머리 부위 관용어 대조 분석 및 교육

대조 분석은 언어의 보편적인 특징을 찾아내어 언어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대조 분석의 장점은 구조가 서로 다른 언어를 대조함으로써 하나의 언어만으로 찾지 못했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외국어 교육에서 이 방법을 응용하여 언어교육의 효과를 높여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한·몽 관용어 대조 분석을 하고자 한다.

2.1. 관용어 대조 분석 방법

한·몽 머리 부위 신체 관련 관용어를 대조 분석하기 위해 먼저 대조 분석 방법을 살피고, 본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대조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자마다 관용어 학습 난이도 등급에 대해서 여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송현아(2008)에서는 4단계로 난이도를 분류하고, 이양금(2010)에서는 송현아(2008)의 난이도 분류를 토대로 5단계로 난이도를 분류하고 있다. 조뢰(2011)에서는 3단계, 김애진(2009)에서는 4단계, 앵흐사롤(2003)에서는 5단계로 난이도를 분리하였다. 이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7>대조의 난이도 분류 방법

학자	I 단계	II 단계	III 단계	IV 단계	V 단계
앵흐사롤(2003)	양국어가 동일한 관용구	의미가 같으면서 표현이 다른	의미가 다르고 표현이 같은	한 국 에 만 있는 것	몽 골 에 만 있는 것

		관용구 의미는	관용구 의미가		
송현아(2008)	양 언어에 동일한 것	같으면서 표현이 유사한 것	같으면서 표현이 다른 것	한 국 에 만 있는 것	
김애진(2009)	의미와 형태가 모두 같은 것	의미가 같으면서 형태가 유사한 것	의미가 같으나 형태가 다른 것	한 국 에 만 있는 관용 어	
이양금(2010)	양 언어에 동일한 것	의미는 같으면서 표현이 유사한 것	의미가 같으면서 표현이 다른 것	한 국 에 만 있는 관용 어	한국어 관 용어가 영 어 표현에 없는 것
조뢰(2011)	의미와 표현이 같은 관용어	의미는 같지만 표현이 다른 관용어	표현이 다르고 의미가 같은 것		

위 표와 같이 난이도 분류는 1-4단계는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5 단계는 언어의 문화적 특징을 고려한 분류이다. 앵흐사롤(2003)에서는 국어 학적인 논문으로서 5단계를 몽골어에만 있는 관용어로 분류를 했으며, 이양금 (2010)에서는 한국어 관용어가 영어 표현에 없는 것으로 5단계로 분류를 하 였다. 이 두 연구의 분류 방법은 몽골어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관용 어를 교육하는 데에 부적절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본 연구는 몽골인 학습자 를 대상으로 한국어 관용어를 교육하는데 있어서 위 분류와 같이 몽골어에만 있는 관용어를 특별하게 따로 분류할 필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선행 연구에서의 분류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누어 대조하고자 한다.

〈표 3-8〉 관용어 대조 분석에 따른 난이도 등급

유형 분류	내용	분류 기준
A유형	표현과 의미가 비슷한 관용어	관용어를 구성하는 어휘의 의미와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의미가 비슷한 것.
B유형	의미는 비슷하며 표현이 일부분 다른 관용어	관용어를 구성하는 어휘의 일부가 다르지만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의미는 비슷한 것.
C유형	의미는 비슷한데 표현이 전혀 다른 관용어	관용어를 구성하는 어휘들이 전혀 다르며,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의미만 비슷한 것.
D유형	한국어에만 있는 관용어	몽골어 관용어에 전혀 없거나 있어도 현재 쓰지 않은 것.

A유형은 한국어 관용어를 몽골어 관용어와 대조했을 때 서로 같은 표현과 같은 의미로 인식되는 항목이다. 각 관용어의 구성 어휘의 의미가 비슷하며, 함축적인 의미도 비슷한 것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관용어라는 특성 때문에 대조했을 때는 두 표현이 같은 의미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지만 대조하지 않으면 직관적으로는 알기 힘든 부분이다. 그러므로 양국 관용어의 유형 분류 특히 문법적 유형의 특징으로 상세하게 대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즉 관용어의 구성 요소 중 주격 조사 ‘이/가’, 보격 조사 ‘이/가’, 목적격 조사 ‘을/를’, 관형격 조사 ‘의’, 부사격 조사 ‘에/에서/에게’¹⁵⁾ 등은 분류 기준으로 고려하지 않겠다. 예를 들면 ‘눈을 감다’와 ‘нүд аних’ (눈 감다) 이 두 관용어의 구성 어휘와 함축적인 의미는 비슷하다. 한국어에서는 격이 조사에 의해 실현되는 모습, 즉 ‘눈을 감다’에서 ‘눈’이라는 명사에 목적격 조사 ‘을/를’을 붙여 구성된 양상이다. 그런데 몽골어는 ‘눈’ ‘нүд’과 ‘감다’ ‘а них’의 구성으로 목적격 조사 없이 나타난 관용어이다. 이 경우 두 관용어는 같은 것으로 본다. 한국어에서도 격조사의 생략은 자유로운 편이다. 즉 한국인 모어 화자가 실생활에서 관용어를 상용할 때 목적격 조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그의 남편이 작년에 눈 감았어요.’는 ‘그의 남편이 작년에 눈을 감았어요.’로 실현될

15) 이주행(2011). 『알기 쉬운 한국어 문법론』. 역락. pp245-250

수 있다. 두 문장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한국어 화자가 봤을 때 조사가 생략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학습자를 이해시킬 수 있다.

B유형은 의미는 비슷하나 표현이 일부분 다른 항목으로, 두 관용어에서 최소한 한 단어가 같은 표현을 가지며 대조를 했을 때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항목이다. 예를 들어 ‘귀가 가렵다[간지럽다]’와 ‘чих нь хангинах’ (chih ni hanginah) (번역: 귀는 뽕뽕거리다)이다. 여기서 ‘귀’라는 어휘가 똑같이 들어 있지만 ‘가렵다’라는 어휘 대신 몽골어는 ‘뽕뽕거리다’란 다른 어휘가 들어 있다. 이는 표현이 다르지만 양국 관용어에 ‘귀’라는 말이 들어 있고,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B유형에 속하게 된다. 관용어 구성의 형태적 특징은 A유형과 마찬가지로 같다.

C유형은 의미는 비슷하면서 표현이 전혀 다른 항목이다. 예를 들면 ‘코가 삐뚤어지다’와 ‘нохой гурав харагдтал’ (nohoi guraw haragdtal), (번역: 개 한 마리가 세 마리로 보이도록)이다. 구성 어휘와 표현 방법이 전혀 다르지만 관용적 의미는 둘 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몹시 취하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이 항목에 속하는 관용어를 대조할 때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의미만으로 대조를 한다.

D유형은 한국에만 있는 관용어이다. 이 관용어의 표현과 의미는 현대 몽골어 관용어에 없거나 있어도 현재 사용하지 않는 관용어이다. 여기에는 ‘눈살을 찌푸리다, 큰 코 다치다’ 등이 속한다. 이 항목에 속하는 관용어를 선정할 때 몽골어 관용어 사전 중에서 발행 또는 재발행 년도가 가장 최근인 2012년 G. Akim¹⁶⁾의 관용어 사전을 중심으로 이용한다. 다음으로 본 기준에 따라 각 유형의 학습 난이도를 예측해 보도록 한다.

A-D유형의 학습 난이도를 예측해 보면, A와 B유형 의미와 표현이 비슷하거나 의미는 같고 표현은 약간 다르므로 이런 관용어를 학습시킬 때 훨씬 쉽게 이해할 것으로 예측된다. C유형은 의미가 같으면서 표현이 전혀 다르므로 B보다는 이해가 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예측한다. 마지막으로 D유형은 의미와 표현이 모국어에 전혀 없는 학습자로서 이해가 가장 어렵고, 그만큼 교육에서도 어려울 수 있

16) G. Akim, op. cit.

다고 예측된다.

2.2. 한-몽 관용어 대조와 교육

총 98개의 한국어 머리 부위 관용어를 위 대조 방법과 기준에 따라 대조를 하고 자한다. 본 장에서 나오는 관용어의 예문과 뜻은 <한국어 몽골어 관용어 대조 사전>¹⁷⁾과 <한국어 관용어 사전>¹⁸⁾에서 인용한다.

한·몽 관용어를 대조함에 있어 가장 힘든 부분이 문법적 유형과 관용어의 번역이었다. 번역 학에서는 번역기법의 이론¹⁹⁾에 따라 속담과 관용어를 번역할 때 등위 법으로 번역을 해야 하지만 본문에서 양국 관용어의 표현 방식과 형태의 차이를 보이기 위해 등위 법을 따르는 것 보다 각 관용어를 구성하는 어휘의 의미와 결합해서 내는 의미를 잘 드러내기 위해 모사법과 작위적 번역법 등에 방법들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하겠다. 또한 몽골어 관용어 속의 말을 한국어 말로 번역했을 때 몽골어 문장의 단어가 문법적으로 품사가 바뀌는 경우 있다. 다시 말하면 단어의 뜻은 같지만 단어의 문법적인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눈 깜짝 안 한다’와 ‘Нүд цавчилгүй’ 한국어 부정표현 ‘안 하다’와 몽골어 부정 표현 ‘гүй’에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먼저 각 유형별 관용어를 대조해보고 이에 따른 교육 방향을 제시한다. 제시한 교육 방향을 토대로 각 유형별 수업지도안을 제안하도록 하였다.

2.2.1. A유형의 관용어

한·몽 관용어의 의미와 표현이 비슷한 관용어.

- (1) 고개를 끄덕이다= Толгой дохих (tolgoi dohih, 고개 끄덕이다)
뜻) 동의하다.

17) 빠산자브 락바와, 최기호(2004). 『한국어 몽골어 관용어 대조 사전』. 국학자료원

18) 박영준, 최경봉(1996). 『한국어 관용어 사전』. 태학사

19) 정호정(2007). 『통역·번역의 이해』. 한국문화사

예) 아버지는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다시 힘겹게 입을 열었다.

(2) 귀를 세우다= Чихээ соотойлгох (chihee sootoilgoh, 귀 세우다)

뜻) (듣기 위해) 신경 쓰다.

예) 귀를 세우고 선생님의 말을 들었다.

(3) 귀를 의심하다= чихэндээ эргэлзэх (chihendee ergelzeh, 귀 의심하다)

뜻) 잘 못 들었다고 생각하다.

예) 까꿍 까꿍 아이고 까꿍 까꿍 아주머니들은 이게 무슨 소리가 싶어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다고 한다.

(4) 눈을 감다=нүд аних (nud anih, 눈 감다)

뜻) 죽다.

예) 아버지께서 눈을 감으신 지 올해 3년째군.

(5) 눈이 깜짝할 사이에=нүд ирмэх зуур (nud irmeh zuur, 눈 깜짝할 사이)

뜻) 짧은 순간.

예) 몸과 마음이 커가는 아픔은 늘 그렇듯 눈 깜짝할 사이에 또 잊혀지기 마련이라는 듯.

(6) 눈이 높다=Нүд өндөр (nud ondor, 눈 높다)

뜻) 수준이 높은 곳에만 관심을 두고 여간한 곳은 시시하게 여길 만큼 거만하다.

예) 눈이 높아 웬만한 남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7) 눈도 깜짝 안 하다.= нүд цавчилгүй (nud tsawchilgui, 눈 깜짝 안하다)

뜻) 놀라지 않다, 대연하다.

예) 넌 내가 중병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도 눈도 깜짝 안 하나?

(8) 눈이 맞다= Х а р ц т у л а х (harts tulah, 눈길이 맞다)

뜻) 남녀 간의 사랑하는 뜻이 통하다.

예) 개구멍을 드나들던 떡 장수 여자와 수하물 창고 인부가 어느 결에 눈이 맞았었다.

(9) 눈이 부시다= Нүд г я л б а х (nud gylbah, 눈 부시다)

뜻) 너무 훌륭하여 황홀하다.

예) 그녀의 모습은 항상 눈이 부시다.

(10) 눈에 익다= нүд э н д д а с а х (nudend dasah, 눈에 익다)

뜻) 익숙하다.

예) 뒷모습이 어딘가 눈이 익은 데가 있다.

(11) 눈이 있다= нүд т э й (nudtei, 눈 있다)

뜻) 안목이 있다.

예) 어린 것도 눈은 있어서 아무 거나 고르지 않아요?

(12) 두 얼굴 = х о ё р нүүр т э й (hoyor nuurtei, 두 얼굴)

뜻) 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도저히 연관이 안 될 정도로 서로 차이가 난다.

예)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현대인들은 두 개의 얼굴을 지니고 있다.

(13) 얼굴에 써있다 = нүүр э н д э э р б и ч э э т э й Б А Й Х
(nuuren deer bicheetei baih, 얼굴에 써있다)

뜻) 표정에 그대로 나타나다.

예)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얼굴에 써있다.

(14) 입이 가볍다 = хөнгөн амтай (hongon amtai, 가벼운 입)
뜻) 수다스럽다.

예) 토끼야, 원숭이의 말은 거짓말일 수 있어 원래 입이 가볍잖아.

(15) 입을 다물다= Амаа хамхиx (amaa hamhih, 입을 다물다)
뜻) 비밀 따위를 지키다.

예) 나는 우리 조국을 위해 입을 다무는 것이다.

(16) 입을 모으다= ам нийлүүлэн (am niiluulen, 입을 모으고)
뜻) 한결같이 말하다.

예) 모두들 한결같이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17) 첫 눈에 반하다= Анхны харцаар дурлах (anhni
harysaar дурлах, 첫 눈으로 반하다)

뜻) 처음 보고 마음에 들며 사랑의 감정을 느끼다.

예) 이제까지는 첫눈에 반한다는 거 믿지 않았는데 이제 믿게 됐어.

(18) 코끝이 찡하다= хамарын үзүүр шархирх (hamariin
uzuur sharhirah, 코의 끝 찡하다)

뜻) 감격하다.

예) 나를 돌봐주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 코끝이 찡해졌다.

A유형의 의미와 표현이 비슷한 항목은 눈에 대한 것이 9개, 기타 9개로 총 18개이다. A유형에 속하는 항목들을 해석해 보면 한국어 화자나 몽골어 화자가 대조를 했을 때 두 관용어가 같다고 느낄 만한 것이다.

총 18개의 관용어 중 목적격 조사 ‘을/를’가 생략되거나 다른 격조사로 바뀐 관용어는 총 6개 (1, 2, 3, 4, 15, 16)이다. 이중 (1), (4), (16)번은 목적격 조사가 완전 생략되어 몽골어 관용어에는 다른 격조사가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관용어이다. 관용어 (2)번과 (14)번은 목적격 조사가 몽골어에는 호

칭어의 조사로 바뀌었으면, (3)번은 목적격 조사가 부사격 조사로 바뀌었다.

다음은 주격 조사 ‘이/가’를 생략하는 경우이다. 몽골어 격조사에는 주격조사가 존재 하지 않기 때문에 A유형의 관용어 중 (5, 6, 8, 9, 11, 14, 18)번은 모든 주격조사는 생략된다. 관용어 7개에서 조사 ‘도’가 삽입되거나 그렇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몽골어의 경우 이 관용어 ‘눈도 깜짝 안하다’를 구어에서 사용했을 때 상황에 따라 ‘도’를 부치는 경우도 있다.

A유형에 속하는 관용어는 의미와 표현이 비슷하므로 이해하기 가장 쉬운 관용어이다. 특히 (5, 6, 7, 8, 9, 11, 14, 18) 주격 조사가 생략되는 관용어와 (1, 4, 16) 목적격 조사가 생략되는 관용어들은 문법 구조 및 문장 품사가 같으므로 학습시킬 때 가장 쉬운 관용어이다. 나머지 관용어들은 문법적으로 조사와 부사만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동사적으로 관용어들이 서로 같아서 학습자들에게 이해시킬 때 크게 혼란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들 관용어를 학습할 때 문법적 이해와 어휘 학습의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끄떡이다, 깜짝하다, 쨍하다, 부시다’ 등의 난이도 높은 어휘라도 직접적 대조가 있어 별 다른 어휘 학습이 필요 없다. 더불어 관용어의 함축적인 의미를 이해시키기 위한 상세한 설명도 필요 없다. 예를 들면 목표어에서 처음 만난 관용어가 모국어에도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밝힌 이상 그 관용어에 대한 더 상세한 설명과 지식이 굳이 필요 없다. 목표어에서 만난 관용어가 모국어에도 있고, 그의 숨겨진 제3의 의미를 이미 알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목표어에서 만난 관용어를 실제 의사소통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유창한 소통을 위한 연습에 주력하는 것이 좋다. 교사가 학습자들로 하여금 목표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그 관용어의 문맥과 상황에 맞는 예문과 예제를 시켜 의사소통에 직접 활용할 수 있게 암기시키는 것이 좋다. 이미 알고 있는 관용어라도 상황에 따라 달리 쓰일 수 있으므로 문맥을 살펴봐야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용어는 일반 단문보다는 대화문을 통해 제시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교수법의 한 갈래로 언어 교수에 있어서 수업의 필수 단위인 과제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위에 제시한 A유형의 관용어와 대조를 통한 관용어 교육 방안을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수업 지도안을 만들어 활용해 보고자 한다.

먼저 대조를 통한 관용어의 반은 몽골어권 학습자들을 구성되어야 한다. 관용어의 교수 학습 단계는 일반 한국어 수업과 약간 달리 다음과 같이 4 단계로 구성한다. A유형의 관용어를 도입 단계에서도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하듯이 동사와 형태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제시 꼭 거칠 필요 없다.

도입	제시	연습	활용	마무리
----	----	----	----	-----

도입 단계에서는 학습하고자 하는 관용어와 관련된 주제를 제시하면서 모국어 관용어와 목표어 관용어를 동시에 제시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동기를 부여하도록 한다. 이 때 그림, 사진 등의 시각적인 부교재를 활용하여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연습 단계에서는 실제 구어 사용에 초점을 두고 의미 문맥과 담화에 맞게 쓰이는데 주력한다. 각 관용어의 주로 쓰이는 상황을 학습자들로 하여금 학습하게 한다. 활용 단계에서는 학습한 관용어를 활용하여 보다 실제적이고 완성도 높은 과제를 수행하는데 집중한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관용어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 및 평가가 이뤄진다. 이상과 같은 순서로 실제 수업을 설계해 보도록 하겠다.

〈표 3-9〉 A유형 관용어의 수업 개요

학습 단원	입에 관한 관용어
학습 목표	입에 관련 관용어를 상황에 맞게 사용하여 이야기 할 수 있다.
기능	관용어를 사용하여 이야기하기
학습 대상	몽골 학습자 중급 10명 내외
학습 내용	입과 관한 어휘

〈표 3-10〉 A유형의 교수 학습 지도안

목표 관용어	입에 대한 관용어		
학습 항목	입이 가볍다, 입을 다물다, 입을 모으다		
학습 단계 (시간)	학습 활동 (교사-학습자)	유 의 점	준 비 물

도입 (10분)	동기 유발과 의미 이해	◎ 다음 이야기를 읽고 오늘의 학습 목표 관용어를 자연스럽게 제시한다. ◎ 이야기에서 나온 관용어를 판서하면서 오늘의 수업 목표를 설명한다. 과자 내 이름은 배배예요. 우리 가족은 식구가 많아요. 그래서 과자가 항상 부족해요. 어느 날 아빠가 커다란 과자를 가지고 와 침대 밑에 숨겨 놓았어요. 그리고 누나와 나를 불러서 ‘이 과자를 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너희들이 먹어’라고 했어요. 우리는 <u>입을 모아</u> ‘엄마한테 말 안 할 거’라고 약속했어요. 나는 <u>입을 다물고</u> 엄마한테 한마디도 안 할 거라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누나는 <u>입이 가벼워서</u> 하루도 참지 못하고 엄마한테 말해 버렸어요. 도입 단계에서 대조된 관용어를 직접 보여주기보다 우선 동기 유발을 위해 읽기 단계를 거치는 것이 좋다. 학습자들과 다 같이 읽기를 읽고 문장 속에서 목표 관용어의 의미를 학습자들로 하여금 함께 파악하게 한다. 이것은 관용어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주는데 도움이 된다. ◎ 양국 관용어를 동시에 제시하고 서로 의미와 표현이 비슷하다는 것을 강조하여 제시한다. 미리 준비한 카드나 PPT 등을 활용하여 해당 관용어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보여준다. 대조 하나만으로 관용어의 의미를 도입 단계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시킬 수 있다.	속담과 헛갈리지 않도록 취한다.	관용어 목록, 입에 대한 그림, 사진.
---------------------	---------------------------------	---	--------------------------	------------------------------

		입이 가볍다→а м хөнгөн 뜻: 말이 많다. 예: 누나가 입이 가벼워서 참지 못하고 엄마한테 이야기해 버렸다. 입을 다물다→Амаа хамхих 뜻: 비밀 따위를 지킨다. 예: 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입을 다물었다. 입을 모으다→а м ний лүүлэн 뜻: 모두 같은 견해를 표현할 때. 예: 우리는 입을 모아 ‘엄마한테 말을 안 할 거’라고 이야기했다. 읽기 자료에서 나온 관용어를 모국어에 관용어와 대조 비교하여 양국 관용어에 비슷한 관용어가 존 재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학습 효과 더 높을 수 있다. 또한 학습이 흥미롭게 이끌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		
연 습 (10분)	말하기 연습	도입 단계에서 직접 대조를 통해 관용어의 의미 를 이해시켰다. 그래서 제시 단계 보다 연습 단계 를 걸치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다. 연습 단계 서는 각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한다. ◎ 다음 대화에 맞는 관용어를 넣어 보세요. (가) 모두들 한 결 같이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 이야기한다. (나) 나는 우리 조국을 위해 () 는 것이	교수 중심 수업 되지 않도 록 주의 한다	여러 상황 에서 나오 는 대화 가 제시 된 자료

		다 (다) 토끼야, 원숭이의 말은 거짓말일 수 있어 원래 ()잖아. (라) 그 이야기에 대해 다시 묻지 말라고 했는데 민수는 () 벌써 물어봤어요. 다행히 철수는 ()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관용어는 문어 보다 구어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 문에 말하기 초점을 두고 연습을 한다. ◎ 알맞은 관용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바꿔 보세요. T: 다음 이야기를 관용어로 바꾸어 이야기해 보세요. (가) 우리는 방학 때 제주도로 여행한다고 다 같이 견해를 합쳤어요. (나) 여자들이 원래 비밀을 잘 지키지 않잖아요. (다) 철수는 그 일에 대해 한 마디도 안 했어요. ◎ 오늘의 배운 관용어를 활용하여 여러분의 성격과 주변 사람들의 성격을 다음 보기처럼 만들어 보세요. <보기> 남들이 나를 입이 가뱌다고 입을 모아 얘기 하지만 나는 비밀 따위를 지키기 위해 입을 다 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입이 가뱌지 않다.		영상 이나 녹음
활용 (10분)	실질적 활용	◎ 배운 관용어를 활용하여 옆의 학생과 보기처럼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보기>		

		지영: 내일 모래 삼촌이 이사 온다면서요 왕방: 네. 입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요? 지영: 민수 씨를 만났거든요. 왕방: 민수가 정말 입이 가볍네요.		
		◎ 자기 선택한 관용어를 옆에 학생에 목표어로 설명해 주고 옆 학생이 그 관용어를 맞히도록 한다. 학습자들을 두 팀으로 나누어 한 팀에 몽골어 관용어 카드를 준다. 카드가 있는 팀은 반대 팀에게 해당 관용어를 목표어로 설명하여 맞추게 한다. 관용어를 설명할 때 관용어를 구성하는 어휘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 방법은 관용어에 대한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데 효과적이다.		
마 무 리	수업 마무리	◎ 간단한 질문을 통해 의미 확인을 한다. 마무리 단계에서 교사는 질문을 통해 오늘 배운 관용어를 확인하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즉 학습자들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 보게 한다. T: 남의 비밀을 지키지 않고 얘기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S: 입이 가볍다고 해요.		

2.2.2. B유형의 관용어

한국어와 몽골어 표현의 일부분이 비슷하면서 관용적 의미도 비슷한 관용어이다. 여기서도 A유형과 마찬가지로 문법 구조와 문장 품사를 대조 기준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1) 귀가 가렵다= чих хангинах (chih hanginah, 귀 뽕뽕거리다.)

뜻) 남이 제 말을 하는 것 같다.

예) 귀가 가려워 죽겠어 누가 내 얘기 하나봐.

(2) 귀를 기울이다= чих тавих (chih tawih, 귀 높다)

뜻) 주의해 듣다.

예) 대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정치인이 되어야한다.

(3) 귀가 닳다= чих дөжирөх: (chih dojiroh, 귀)

뜻) 여러 번 들어 지겹게 되다.

예) 그 이야기는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4) 귀 담아 듣다= чих тавин сонсох (chih tawin sonsoh, 귀 높고 듣다)

뜻) 주의해 듣다.

예)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을 귀 담아 들었다.

(5) 귀가 얇다= чих зөөлөн: (chih zoolon, 귀 부드럽다)

뜻) 남의 말을 따라 행동하다.

예) 그는 어리석고 순진하고 귀가 얇고 비밀이 없고 남을 잘 믿는다.

(6) 귀가 어둡다= хатуу чихтэй: (hatuu chihte, 귀 딱딱하다.)

뜻) 남의 말을 잘 듣지 못한다.

예) 나이가 먹으니 귀가 어두워진다.

(7) 귀가 여리다= ч и х з о о л о н : (chih zoolon, 귀 부드럽다)

뜻) 속는 줄도 모르고 남의 말을 그대로 잘 믿는다.

예) 약간 멍한 데다가 귀까지 여러 하는 일마다 손해만 본다.

(8) 귀가 열리다= Н у д ч и х н э э г д э х : (nud chih neegdeh, 눈 귀 열리다.)

뜻) 세상 물정을 이해하다

예) 사회 돌아가는 데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금방 귀가 열리게 될 거야.

(9) 낮을 가리다= Ц а р а й х а р а х : (tsarai harah, 얼굴(낮)을 보다.)

뜻) 차별, 대우를 하다

예) 낮을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대해 주는 사람은 박 선생님뿐입니다.

(10) 눈에 거슬리다= Н у д Н и й Х О Г , Ш у д Н и й М А Х : (nudnii hog, shudnii mah, 눈의 쓰레기, 이빨의 고기)

뜻) 불쾌한 느낌이 있다. 미움을 사다.

예) 내 눈에 거슬리는 짓을 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한다.

(11) 눈을 뜨다= Н у д т а й л а г д а х : (nud tailagdah, 눈 불리다)

뜻) 이치를 깨닫거나 무지한 상태에서 벗어나다.

예) 자라 온 환경 때문에 그는 여자에 일찍 눈을 뜨게 되었다.

(12) 눈을 뜨고 볼 수 없다= н у д х а л т и р а х : (nud halitirah, 눈이 미끄러지다)

뜻) (참혹함이나 쯔발건의) 정도가 심하다.

예) 지진 피해로 그 마을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비참했다.

(13) 눈에 들다= нүдэнд дулаахан: (nudend dulaahan, 눈에 따듯하다)

뜻) 마음에 들다.

예) 일 잘 하는 것은 시어머니의 눈에 들었으나, 얼굴 미운 것은 남편 눈에 들지 않았다.

(14) 눈에 들어오다= Толгойд орох: (tolgoid oroh, 머리에 들어오다)

뜻) 이해가 되다.

예) 머리가 멍하여서 책을 봐도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15) 눈을 뜬 장님= Нүдэн балай чихэн дүлий: (nuden balai chihen dulii, 눈이 어둡고 귀가 멀다)

뜻) 보면서도 알지 못하다.

예) 어떤 면에서 언론도 진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요. 이래서 우리는 눈 뜬 장님이예요.

(16) 눈 밖에 나다= нүд үзүүрлэх: (nud uzuurleh, 눈 끝머리로 보다)

뜻) 미움을 받다.

예) 회사든 학교든 어디서나 그런 옳은 말만 하다가는 눈 밖에 나기 십상이다.

(17)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다= нүд хөхрөх: (nud hohroh, 눈이 파랗게 되다)

뜻) 몹시 애타게 오래 기다리다.

예) 시험을 본 후 합격자 발표를 눈 빠지도록 기다렸다.

(18) 눈을 붙이다= нүд хор гаргах: (nudnii hor gargah, 눈독을 나오게 하다)

뜻) 잠시 동안 잠을 자다

예) 밤도 깊었는데 이젠 눈을 좀 붙여야 내일 일찍 일어나지.

(19) 눈을 반짝거리다= НҮД нь эргэлдэх (гялалзах, 눈은 돌다)

뜻) 관심을 가지다

예) 우리들의 이야기가 흥미롭고 신기했는지 선생님은 눈을 반짝거렸다.

(20) 눈앞이 캄캄하다= Дотор харанхуйлах (dotor haranhuilah, 속이 캄캄하다)

뜻) 절망적인 생각이 들다.

예) 불합격 소식을 듣자 눈앞이 캄캄했다.

(21) 눈엣가시= НҮД хорсох: (hud horsoh, 눈 옥신옥신 찌시다)

뜻) 몹시 미워 눈에 거슬리는 사람

예) 다른 사람들은 그를 보고 우리 팀의 보배라고 말하지만, 나에게는 눈엣가시다.

(22) 눈을 딱 감다= НҮД ээ аниад: (nudee aniad, 눈을 감고)

뜻) 더 이상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다.

예) 이번 기회에 눈을 딱 감고 자동차를 한 대 샀다.

(23) 목에 힘을 주다= БҮДҮҮН ХҮЗҮҮ гарах: (buduun huzuu gargah, 똥똥한 목을 내다)

뜻) 매우 자랑스러워하거나 빼기다.

예) 목에 너무 힘을 주지 말고 후배들을 대해라.

(24) 얼굴이 두껍다= НҮҮР ширлэх: (nuur shirleh, 얼굴을 가죽으로 덮다)

뜻) 뻔뻔하다

예) 그런 일은 얼굴 두꺼운 사람도 하기 힘들 정도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

(25) 얼굴을 내밀다= нүүр ээ харуулах: (nuuree haruulah, 얼굴을 보여주다)

뜻) 모습을 보인다. 출석하다.

예) 동창회에는 얼굴을 내 밀기만 하고, 그리 바로 갈게요.

(26)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 Нүүр Хийх Газаргүй болох: (nuur hiih gazargui boloh, 얼굴을 넣을 데가 없다)

뜻) 창피하다

예) 자식 하나 잘 못 두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다.

(27) 얼굴이 뜨겁다= нүүр улайх: (nuur ulaih, 얼굴이 밝아지다)

뜻) 창피하다

예) 어제 내가 주정부린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뜨거워졌다.

(28) 얼굴을 못 들다= Нүүр хийх газаргүй болох: (nuur hiih gazargui boloh, 얼굴을 넣을 데가 없다)

뜻) 창피하고 난처한 처지가 되다.

예) 얼굴을 못 들 만큼 잘못된 것 같지는 않다.

(29) 얼굴에 철판을 깔다= ичих нүүрээ элгэндээ наах: (ichih nuuree elgendee naah, 염치를 간에 붙이다)

뜻) 염치나 체면도 없이 몹시 뻔뻔스럽다.

예)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는가.

(30) 입이 닳도록= амаа чилтэл: (amaa chiltel, 입이 지치도록)

뜻)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다.

예) 입이 닳도록 공부하라고 해도 아이들은 말을 듣지 않았다.

(31)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ам эвлэхээ болих: (am ewlehee bolih, 입이 뭉치지 않는다)

뜻) 말을 하지 못하다.

예) 그 여자 앞에만 가면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32) 입이 많다= Ам бүл олон (am bul olon, 식구가 많다)

뜻) 식구가 많다.

예) 유난히도 입이 많던 우리 집은 항상 먹을 것이 부족하여 형제간에 경쟁이 치열했다.

(33) 입이 무겁다= ам чангатай: (am changatai, 입이 강하다)

뜻) 신중하게 경솔하지 않아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예) 우선 말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은 선천적으로 차이가 있다.

(34) 입에 익다= Амны уншилга: (amnii unshilga, 입의 불경)

뜻) 어떤 말이 버릇이 될 정도로 익숙해지다.

예) 읽고 보니 입에 익은 문구이다.

(35) 입에 침이 마르다= ам мэдэн магтах: (am meden magtah, 입을 알고 찬찬하다)

뜻) 남을 아주 좋게 말하다.

예) 자식 자랑을 입에 침이 마르게 늘어놓다.

(36) 입에 오르다= Амны зугаа (зууш) болох: (amnii zugaa boloh, 입에 반찬이 되다)

뜻) 이야깃거리로 되다.

예) 마을 아주머니들의 입에 오른 이야기가 심상치 않다.

(37) 제 눈에 안경= миний нүдээр хардагч болоосо

й: (minii nudeer hardag ch boloosoi, 내 눈으로 봤으면 하다)
 뜻) 남이 보아서 우스운 것도 제 마음에 들면 좋아 보인다.
 예) 남이 보면 그 쌍이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제 눈이 안경인지 둘은 보기만 해도 행복에 겨워한다.

(38) 코에 붙이다= Аманд ч үгүй хамард ч үгүй: (amand ch ugui hamard ch ugui, 입에도 댈 수 없고 코에도 댈 수 없다)
 뜻) 음식이 너무 적음을 나타낸다.
 예)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음식을 이 정도밖에 가져 오지 않으면 누구 코에 붙이라고 하는 거야.

(39) 코를 찌르다= хамар сэтлэм (hamar setlem, 코)
 뜻) 냄새가 몹시 자극하다.
 예) 이 주변에는 항상 코를 찌를 정도로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40) 콧대가 높다= хамараа сөхөх: (hamaraa sohooh, 코를 올리다)
 뜻) 잘난 체하고 거만하다.
 예) 난 아무 것도 머리에든 것 없이 콧대만 높은 여자는 딱 질색이에요.

(41) 피 눈물이 나다= цусаар уйлсан ч: (tsusaar uilsan ch, 피로 울어도)
 뜻) 답답하여 죽을 지경이다. 고생하다.
 예) 피 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전문가로 성공할 수 있었다.

(42) 한 목소리로 내다= Нэгэн дуугаар: (negen duugaar, 한 소리로)
 뜻) 모두 같은 견해를 표방하다.
 예) 정부의 개혁 정책에 여야가 한 목소리로 환영하였다.

B유형에 속하는 항목은 총 42개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여기서 보면 한국과 몽골의 문화 또는 사고방식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B유형 속하는 관용어 중 눈과 관련된 관용어가 18개로 가장 많았으면, 다음으로는 귀에 대한 관용어가 8개, 입과 얼굴에 대한 관용어는 각각 7개로 나타났다.

이 항목에 속하는 관용어를 해석해보면 전체 관용어의 의미가 비슷한데 번역했을 때 두 단어 중 하나의 단어만 뜻이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항목의 속하는 관용어의 격조사뿐만 아니라 문법 구조와 문장 품사도 크게 다를 수도 있다. B유형의 관용어들을 형태적 특징과 통사적 특징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관용어 중 격조사에서 주격조사가 18개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몽골어 격조사에 주격조사가 없어서 주격조사는 모두 자동으로 생략된다. 이 중에서 (17)과 같이 각 관용어의 표현이 달라서 조사가 다른 조사로 바꾸었다. 목적격 조사의 경우 총 12개의 관용어에 나왔다. 몽골어와 한국어의 목적격 조사는 문장 안에서 다른 기능을 보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목적격 조사는 대조했을 때 주로 생략된다. 목적격 조사가 생략된 것은 (2, 9, 11, 12, 15, 18, 19, 28, 30, 41)등이다. 마지막으로 부사격조사는 11개 (10, 13, 14, 23, 29, 34, 35, 36, 37, 38)의 관용어에 사용되었다. 이 중에서 (13, 14, 38)번 관용어의 부사격 조사는 서로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어휘적 특징으로 살펴보면 14와 20번의 관용어는 서로 신체 부분이 다르다는 점이 있다. 예를 들어 14번 ‘눈에 들어오다’ 몽골어 관용어에 ‘머리에 들어오다’ ‘눈’과 ‘머리’ 신체어가 다르지만 ‘들어오다’는 말이 일치한다. 또한 특징은 (8, 10, 15, 41)번의 관용어처럼 신체 어휘 두 개를 갖는 관용어이다. 예를 들어 8번의 경우 ‘귀가 열리다’ 몽골어 관용어로 ‘눈 귀 열리다’로 두 개의 신체 어휘가 사용되며 같은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B유형의 관용어는 최소한 한 단어가 같은 표현을 갖으며 양국 관용어를 대조했을 때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관용어이다. 그래서 대조 하나만으로 관용어의 학습을 완성시킬 수 없다. 각 관용어의 표현이 일부분 다르기 때문에 관용어의 표현 방식과 관용어의 성격을 알 수 없다. 관용어 구성 어휘의 학습도 문화적 배경을 적절히 반영해 주어야 한다. 언어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는

언어 습득이 힘들다. 장미(2012)²⁰⁾에서는 문화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언어이며, 그 중에서도 문화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관용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B유형의 형태가 일부분 다른 관용어를 학습할 때 A유형의 관용어 처럼 사용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 이해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하게 관용어의 개념을 제시하거나 문화적인 배경을 설명해주어야 한다. 해당 관용어에 대한 문화적 배경 지식을 주기 위해 특정한 주제와 신체 기관별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한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주제의 관용어를 다루는 것보다 신체의 한 부분을 중심으로 심화된 수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예를 들면 ‘코’에 대한 관용어 ‘코 앞에 닥치다’, ‘내 코가 석자다.’등이 어떤 기회나 시간이 매우 가까이 다가왔음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은 한국어에서는 ‘코’이며 몽골어에 ‘х о о л о й д э э р т у л а х’ (hooloi deer tulah) ‘목에 걸리다’의 ‘목’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강조하여야 한다. 이는 한국어와 몽골어에서 어떠한 의미를 표현하는 신체 부위가 다르다는 문화적 차이를 알 수 있다. 또는 학습자들의 머릿속의 의미 연결망과 의미 확장 시스템을 학습자들로 하여금 활용시킬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대조 방법을 고려하여 실제 수업 지도안을 만들어 보도록 한다. 수업 진행 방식은 일반 한국어 수업과 같이 5 단계로 제시할 것이다.

도입	제시	연습	활용	마무리
----	----	----	----	-----

도입 단계에서는 학습하고자 하는 관용어와 관련된 주제를 자연스럽게 노출하며 해당 관용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대해 이야기 한다. 그리고 모국어에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관용어에 대해 물으며 그 관용어에 관련된 스키마를 형성 시킨다. 제시 단계에서 해당 관용어의 의미 설명과 몽골어에 비슷한 관용어와 대조, 비교

20) 장미(2012)에서는 중국어권 학습자들에게 문화 중심 교육 방안으로는 한-중 상이형과 한국어에만 있는 신체 관용어를 위주로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으며, 학습자에게 신체와 관련 문화 요소들을 알리기 위해서는 스토리그림 교수법과 매체자료를 활용한 교수법을 고려한다고 하였다.

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문화적 차이를 인지하도록 이끌어 준다. 또 경우에 따라 관용어의 개념을 제시하도록 한다. 연습 단계에서는 배운 관용어의 단순한 반복에서 학습자 스스로가 관용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단계에서 단순한 문장으로 표현된 단순한 말하기 연습부터 학생-학생의 대답형식으로 듣기 말하기가 이루어진다. 활용 단계에서는 문화적인 차이가 없어지도록 자신에 생활과 관계 지어서 말할 수 있게 이끌어 준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학습한 관용어의 의미를 확인한다. 위와 같은 순서로 수업을 설계 해보도록 하겠다.

〈표 3-11〉 B유형의 관용어 수업 개요

학습 단위	눈에 대한 관용어
학습 목표	눈과 관련된 관용어를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능	관용어를 사용하여 말하기
학습 대상	중급이상 몽골어권 학습자 10명 내외
학습 내용	눈에 관한 어휘, 한국 문화

〈표3-12〉 B유형의 교수-학습 지도안

목표 관용어		눈에 대한 관용어		
학습 항목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다, 눈에 들다, 눈을 딱 감다		
학습 단계 (시간)		학습 활동(교사-학습자)	유의 점	준비 물
도입 단계 (5분)	동기 유발	◎ 읽기를 읽고 관용어의 의미를 문맥 속에서 파악하도록 한다.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던 영화가 드디어 오늘 개봉 한다. 하지만 최신 영화라서 가격이 만만치 않았다. 그 정도 돈을 내고 영화를 보는 것은 학생으로서는 쉽지 않았다. 처음부터 눈에 들어, 꼭 보고 싶은 마음으로 눈을 딱 감고 표를 사 버렸다.		PPT 나 그림 , 사 진 활 용

		읽기 자료를 통해 학습자들의 관심을 목표 관용어에 모아 놓는다. 문장 속에서 관용어의 의미를 스스로 맞히도록 하여 다음 단계를 흥미롭게 연결해준다.		
제시 (10분)	목표 관용어와 관련어휘 제시	㉠ 학습자 스스로 관용어의 의미를 이해하게 하여, 모국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관용어가 무엇이인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도록 한다. • <u>돈도 얼마 없는데 눈 딱 감고 표를 사 버렸다.</u> • 눈을 딱 감고 표를 샀다. • 더 이상 다른 생각하지 않고 표를 사 버렸다. 몽골어 관용어 ‘Нүд ээ аниад, 눈을 감고’이다 ㉡ 관용어의 형태적 특징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함축적인 의미를 학습 시키며, 관용어의 해학적과 풍자적인 의도를 동시에 이해시킨다. • <u>영화 개봉을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다.</u> 〈의미〉 그 영화를 개봉할 것을 오래 기다려 보고 있었다. 눈 깜짝도 안 하고 보고 있다. 눈을 빠질 정도로 눈을 크게 만들어 본다. 몹시 애타게 오래 기다린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학습자 스스로 관용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주의한다.	PPT나 사진, 그림 활용

		몽골어 관용어로 ‘нүд хөх рөх’(눈이 파랗게 되다)는 눈 깜짝 안하고 오래 동안 계속 보고 기다려서 마침 눈이 바람과 먼지를 맞아 눈 색깔이 변한다는 뜻이다. 눈 빠지도록 기다리다→ нүд хөхрөх 눈이 빠져 떨어질 정도로 → 눈 색깔이 변할 정도로 애타게 오래 기다리다는 뜻으로 쓴다. ◎ 다음 관용어를 서로 같은 의미로 묶어 보세요. 〈제시 관용어〉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다, 눈에 들다, 눈을 딱 감다. 몽골어 관용어 нүд хөх рөх, Нүд э э аниад		
연습 (10분)	다양한 상황 제시	연습 단계에는 여러 상황을 만들어 각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이해를 돕는 연습을 중심으로 했다. ◎ 보기에 관용어를 넣어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보기〉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다, 눈에 들다, 눈을 딱 감다. (1) 우리 할머니께서는 제가 결혼하기만을 () (2) 우리 누나는 눈이 높아서 () 남자가		보기 및 수업 자료

		없대요. (3) 어릴 때는 설날을 ()던 것 같아요. (4) 졸업 시험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는데도 제주도 여행을 () 허락했다. ◎ 상황을 주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말하기를 시킨다. 다음 상황을 보고 오늘의 배운 관용어를 활용하여 이야기 해보세요. (1) 그 남자가 마음에 들어 사귀게 됐다. (2) 하지만 군대에 가서 이 년 후에 돌아왔다. (3) 난 그 남자가 올 때까지 공부만하면서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활용 (10분)	실제 적 활용	다음 상황을 관용어를 활용하여 이야기 하세요. (1) 시험 합격자 발표를 오래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다. (2) 엄마의 생일에 비싼 반지를 사 드렸다. (3) 나는 그 여자가 웬지 좋아요. (4) 그 여자의 웃는 모습은 눈에 뜨지만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여러분이 대화를 만들어 짝과 이야기해 보세요. 가) 나) 다) 라)	교실 내의 수업 에서 벗어 나 실제 적 상황 을 제시 하도 록 주의 한다.	PP T나 사 진, 그 림 자 료 를 활 용 한 다.

		◎ 다음 관용어를 비슷한 의미로 묶어 보세요.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다, 눈에 들다, 눈을 딱 감다.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다. 마음에 들다, 눈에 뜨다. НҮД ХӨХРӨХ, НҮДЭЭ АНИАД, НҮДЭНД ДУЛААХА 활용 단계에서 목표 관용어를 실생활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게 실제 상황에 관계 지여 활용 단계를 진행하였다.		
마무리	수업 마무리	배운 관용어의 의미를 물어보고 수업을 마무리한다. T: НҮД ХӨХРӨХ, 이 관용어를 한국어로 설명하고 대응하는 몽골어 관용어를 말해 보세요.		

2.2.3. C유형의 관용어

한국어와 몽골어 표현이 전혀 다르지만 관용적 의미는 비슷한 관용어이다. 여기서는 관용적 의미만을 중심으로 대조를 진행한다.

(2) 귓등으로 듣다= дүлий толгой: (dulii tolgoi, 귀먹은 머리)

뜻) 듣고도 들은 채 만체하다.

예) 남의 충고를 귓등으로 들어도 괜찮은 거야?

(3) 눈에 밝히다= Сийрэг толгойтой: (siireg tolgoitoy, 슬기로운 머리)

뜻) 이해력이 뛰어나다.

예) 계산에는 눈이 밝은 사람이 말을 배우는 데는 왜 그렇게 어두운지 알 수가 없어.

(4) 눈코 뜰 새 없이= б о р в и б о х и с х и й х: (borwi bohishiih 허리를 굽힐 틈 없이)

뜻) 정신 못 차리게 몹시 바쁘다

예) 어찌나 일이 많아져 눈 코 뜰 사이가 없다. 3월 달이 되니까 해야 할 일이 많아져 눈 코 뜰 사이가 없다.

(5) 눈이 멀다= Т о л г о й н ь э р г э х: (tolgoi ergeh, 머리가 돌다)

뜻) 사물에 좋고 나쁨을 잘 가려내지 못하게 되다.

예)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 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6) 눈이 어둡다= т о л г о й э р г э х: (tolgoi ergeh, 머리 돌다)

뜻) 욕심 때문에 판단력을 잃다.

예) 돈에 눈이 어두워 친구를 배신했단 말이냐?

(7) 머리를 올리다= Х а д а м д г а р а х: (hadamd garah, 시집 나가다)

뜻) (낮춤의 의미로 사용되어) 시집가다.

예) 많은 남자와 사랑하고 교재를 해 봐도 잊히지 않는 것은 머리 올려 준 첫 사내이다.

(8) 목이 빠지다= н ү д х ө х р ө х: (nud hohroh, 눈이 파랗게 되다)

뜻) 몹시 애타가 오래 기다리다.

예) 아이가 어머니를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다.

(9) 입맛이 당기다= Х о р х о й х ү р э х, х о р х о й г о з о г н о х: (horhoi hureh, horhoi gozolzoh, 벌레 대다, 벌레가 움직이다)

뜻) 어떤 일에 흥미가 일거나 욕심이 생기다.

예) 보수가 제법 된다는 말에 입맛이 당겼다.

(10) 입이 짧다= Ш у в у у н ы х о д о о д т о й: (shuwuunii hodoodtoi, 새 위 있다)

뜻) 식성이 까다롭다

예) 집안 식구들 입이 짧으면 주부들이 고생한다.

(11) 입에 거미줄 치다= Х о о с о н х о н о х: (hooson honoh, 비워 자다.)

뜻) 가난하여 먹지 못하고 굶다.

예) 지금 입에 거미 줄 칠판인데 더운밥 찬밥을 가리겠습니까?

(12) 입에 맞는 떡= З а х и а л с а н ю м ш и г: (zahialsan yum shig, 주문한 것처럼)

뜻) 알맞은 것.

예) 김 사장은 전일부터 박 씨를 탐내고 있었다. 김 사장 입장에서 본다면 박 씨는 그야말로 입에 맞는 떡이었다.

(13) 코앞에 닥치다= х а я а н д и р э х б у у х, х о о л о й д э э р т у л а х: (hayand iren buuh, hooloi deer tulah, 옆에 이사 오다, 목에 걸리다)

뜻) 어떤 일에 시일이 얼마 남지 않다.

예) 코앞에 닥친 시험 때문에 눈 코 뜰 새 없다.

(14) 콧대가 세다= б ү д ү ү н х ү з ү ү г а р а х: (buduun huzuu gargah, 뚱뚱한 목을 내다)

뜻) 건방지다. 잘난 체하고 뽐내다

예) 중국 남자들이 한국 여자를 좋아해요. 중국 여자들이 콧대가 센 것에 비해 한국 여성은 다소 곳하고 남편 내조를 잘한다고 해서요.

(15) 코가 납작해지다= х у л х и н ь б у у х: (hulh ni buuh, 고막이 내리

다)

뜻) 망신을 당하다.

예) 자기가 최고인 줄 알다가 제대로 된 적수를 만나 코가 납작해진 이후로 자기 자랑은 입 밖에 꺼내지도 않았다.

(16) 코가 땅에 닿다= алга хавсаран наминчлах: (alga hawsaran naminchlah, 손바닥을 붙이고 회개하다)

뜻) 공손한 모습을 취하다

예) 코가 땅에 닿도록 빌었건만 아무 응답이 없다.

(17) 코가 뺨떨어지다= нохой гурав харагдтал, мал болтлоо: (nohoi guraw haragdtal uuh, mal boltloo uuh, 개 한 마리를 세 마리로 보이도록 마시다.)

뜻)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몹시 취하다

예) 어제는 뺨떨어지도록 술을 마셨다.

C유형의 의미는 같으나 표현이 전혀 다른 항목으로 총 16개이다. 이 항목에 속하는 관용어의 특징을 살펴보면 (2, 4, 5)번 관용어는 신체 기관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2)번 ‘눈에 밝히다’는 몽골어 관용어에는 ‘슬기로운 머리’라는 관용어에 대응한다. 또 한 특징으로 (13, 14, 15, 16)번에 한국어 관용어는 사람의 성격을 코로 표현하는 것이 보이는데 몽골어에서는 코만이 아니라 여러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코’는 사람의 성격을 가리키는 어휘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 차이를 보이는 관용어를 교육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관용어의 관용적인 의미는 대조를 통해 쉽게 이해시킬 수 있지만, 구성 어휘의 난이도가 학습자의 수준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목표어 관용어의 형태와 통사가 모국어 관용어와 크게 다르다. 이에 따라 학습자들이 관용어 학습을 받았는데도 실생활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C유형의 관용어 학습은 모국어의 관용어 대조 없이는 정확한 의미를 이해시키기 어렵다. 표현이 전혀 다르고, 문장 성분도 다른 관용어기 때문에 학습

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항목에 속하는 관용어를 교육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외우기이다. 대조를 통해 제3의 의미를 정확하게 학습할 수 있지만 모국어의 관용어와 다른 형태로 이루어진 관용어를 암기시키는 것이 가장 빠르다.

〈표 3-13〉 C유형의 교수-학습 지도안

목표 관용어		눈에 대한 관용어		
학습 항목		눈코 뜰 새 없이, 코 뻘뻘어지다.		
학습 단계 (시간)		학습 활동(교사-학습자)	유의 점	준비 물
도입 단계 (5분)	동기 유발	◎ 읽기를 읽고 관용어의 의미를 문맥 속에서 파악하여 모국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관용어로 무엇이 있는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도록 이끌어 준다. 〈읽기〉 가. 시험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다. 나. 그러게. 시험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있어. 가. 무슨 일이 있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나. 어제 선배 졸업식에서 술을 코 뻘뻘어지게 마셔서 그래요. 위 관용어와 같은 의미의 몽골어 관용어가 무엇이 있을까요?		PPT 나 그림 , 사진 활용 .
제시 (10분)	목표 관용 어와 관련	◎ 양국 관용어를 비교하여 제시한다. 눈 코 뜰 새 없다→ борви бохис х	학습 자 스스 로	PPT 나 사진 ,

	어휘 제시	и й х 눈 코 뜰 사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는 뜻으로 표현한다. T: 이 관용어는 주로 ‘바쁘다’는 말을 붙여 많이 사용한다. 눈 코 뜰새 없이 바쁘다= БОРИВ БОХИ С ХИЙХ ЗАВГУЙ. 예) 그 동안 유학 갈 준비를 하느라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코 빠돌어지다→нохой гурав харагдтал T: 술을 너무 많이 마셔 몹시 취했다는 의미예요. 이 관용어는 주로 뒤에서 ‘마시다’는 말을 붙여 사용한다.	관용 적 의미 를 파악 할 수 있도 록 주의 한다.	그림 활용
연습 (10분)	다양 한 상황 제시	◎ 보기에 관용어를 넣어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보기〉 нохой гурав харагдтал, борви бохис хийх 눈 코 뜰 새 없다, 코 빠돌어지다. (가) 그 동안 유학 갈 준비를 하느라고 () 바빴어요. (나) 그 아저씨는 술을 마실 때 꼭 () 미신다. (다)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라) () 마신 사람이 혼자 집을 찾아		보기 및 수업 자료

		갈 있겠어?		
활용 (10분)	실제 적 활용	◎ 배운 관용어를 활용하여 대화나 글을 쓴다. T: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옛날에 너무 바빴던 일에 대해 써 보세요. T: 여러분은 시험 기간에 너무 바쁘죠? 그 때 친구들에게 너무 바쁘다는 상황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관용어를 배우기 전에 어떻게 상황을 표현했는지, 배운 후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쓰기를 한다. T: 다 했어요? 그럼 자기 쓴 것을 친구들에게 읽어 주고 관용어를 배워서 자기 의도 전달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얘기 봅시다.		
마무리	수업 마무리	◎ 질문을 통해 이해를 확인한다. T: нохой гурав харагдта л 은 한국어 관용어로 뭐예요? S: 코 빠돌어지다. T: 너무 바쁠 때는 어떤 관용어를 사용하나요? S: 눈 코 뜰 새 없다.		

2.2.4. D유형의 관용어

한국어에만 있는 관용어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관용어를 G.Akim(2012) <몽골어 관용어 사전>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1) 고개를 숙이다

뜻) 암전히 있다. 겸손하다.

예) 벼도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법이다.

(2) 귀가 아프다.

뜻) 너무 여러 번 들어서 듣기 싫다

예) 그 얘기를 귀가 아프게 들어다.

(3) 귀에 거슬리다

뜻) 듣기 거북하다.

예) 나도 형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남이 후히 형 홍보는 것은 귀에 거슬린다.

(4) 귀에 못이 박히다

뜻)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들어 더 이상 듣기 싫도록 되다.

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해도 소용없는 사람이다.

(5) 귀를 달다

뜻) 불충분한 약간 보태거나 붙이다

예) 시간이 다 끝나갈 무렵에 다시 한 번 귀를 달아 설명했다.

(6) 길눈이 어둡다

뜻) 가본 길을 잘 찾아 가지 못한 만큼 길을 잘한 번에 알아 보다. 기억하지 못한다

예) 길눈이 어두워서 찾아 가지 못 했다.

(7) 눈에 띄다

뜻) 현저하다.

예) 올해 들어 우리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눈에 띄게 줄었다.

(8)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뜻) 귀엽다. 귀하다.

예) 늘그막에 얻은 아들이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9) 눈에 불을 켜다

뜻) 탐내다, 화내다

예) 세상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돈과 명예와 권력과 그런 것을 흠치기에 바쁜데도 그는 그런 세속의 때를 훌훌 벗어 버린 현대의 현자였다.

(10) 눈에 선하다

뜻) 기억에 생생하다.

예) 피약별 아래에서 고생하는 아들의 얼굴이 눈에 선하여 어머니는 잠을 못 이루셨다고 한다.

(11) 눈을 돌리다

뜻) 관심을 옮기다

예) 다른 일에 눈을 돌릴 여력이 없습니다.

(12) 눈에서 불이 나다

뜻) 감정이 격렬해지다.

예) 그의 욕설을 듣는 순간 눈에 불이 나는 듯했다.

(13) 내 코가 석자다

뜻) 자기 앞에 닥친 일이 크다.

예)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도와 줄 수 있겠어요?

(14) 눈살을 찌푸리다

뜻) 못 마땅해 하다.

예) 이 정도의 농담에 눈살을 찌푸릴 사람이 아닙니다.

(15) 입이 심심하다

뜻) 군것질을 하고 싶다.

예) 방 안에 온종일 있다 보니까 입이 심심하곤 했다.

(16) 입에 맞다

뜻) 취향에 맞다.

예) 타국에 나와서 입에 맞는 음식을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지.

(17) 입맛에 맞다

뜻) 취향에 맞다.

예) 10년대들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쇼와 오락 담당 프로듀서들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였다.

(18) 입씨름을 하다

뜻) 말로 애를 써서 하는 말

예) 남편이 매일 술을 마셔서 술을 좀 끊으라고 매일 입씨름을 한다.

(19) 콧대를 꺾다

뜻) 자만심을 꺾다.

예) 한국 팀은 기고만장하는 미국 팀의 콧대를 꺾어 놓았다.

(20) 큰 코를 다치다

뜻) 크게 봉변을 당하다.

예) 어리다고 얕보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21) 한 눈에

뜻) 일시에 한꺼번에.

예) 국세청은 모든 토지 거래 내용을 전산 양도 소득세 과세 자료로 관리해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했다.

(22) 한 눈을 팔다

뜻) 딴 짓을 하다.

예) 한 눈 팔지 않고 오로지 공부에만 매달렸다.

(23) 한 눈에 알 수 있다.

뜻) 일시에 한꺼번에.

예) 그는 마지막 정리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잘 했다.

D유형에 속 하는 관용어들은 한국의 문화가 아주 많이 함축되어 있는 항목들로 몽골인 학습자들의 관용어 학습에 가장 어려운 항목이 될 거라고 예상된다. 예를 들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과 ‘눈살을 찌푸리다’ 등은 몽골인 학습자들이 그들의 문화에서 접하지 못했던 표현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조를 통한 관용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어 D유형의 한국어에만 있는 관용어는 대조를 통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교육 방안을 제시하지 않겠다. D유형의 관용어 경우는 기존의 관용어 교육과 동일하게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3장 2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어 관용어 98개를 몽골어 관용어와 대조하여 난이도 등급을 분류하였다. 여기서 B유형은 의미는 비슷하나 표현이 일부분 다른 관용어로 총 42개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D유형의 한국어에만 있는 관용어는 23개, A유형의 의미와 표현이 동일한 관용어는 18개로 나왔으며, 마지막으로 C유형의 의미는 같으나 표현이 전혀 다른 관용어는 가장 적은 16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A와 B유형의 관용어를 학습할 때는 학습이 쉽게 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C와 D유형의 관용어를 학습할 때 비교적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D유형의 관용어는 학습의 가장 어려운 항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 4 장 결 론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몽골인 학습자에게 한국어 학습의 궁극적인 목표는 유창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에 있을 것이다. 한국인 모어 화자들은 자기표현의 이해를 돕거나 자신들의 의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혹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관용어를 사용한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한국어 학습자들의 좀 더 효과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는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사용 빈도가 높은 관용표현의 학습은 필수적인 어휘 학습 분야임에 틀림없다.

본 연구는 한국어와 몽골어 관용어를 대조 분석하여, 몽골인 학습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관용어의 난이도 분류를 했다. 그리고 각 분류에 맞는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기술하였다. 또한 신체 관련 관용어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해 봤다. 검토한 결과 몽골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관용어에 대한 연구는 몇 개의 선행 연구를 제외하고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2장에서는 관용어의 개념과 특징을 선행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관용어의 개념은 학자마다 매우 상이한 견해를 보이고 있었다. 관용어에 대한 사전적 의미와 학자들의 정의를 살피고 그것을 바탕으로 관용어의 개념과 정의를 설정하고 관용어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한·몽 관용어를 대조하여 대조를 통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어 교육 기관을 운영 중인 3개 학교의 교재와 ‘살아 있는 한국어 관용어’, ‘한국어 관용어100’을 선정하여 교재의 관용어를 머리 부위 관용어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머리 부위 신체 관용어 98개를 얻었으며 선정한 관용어를 몽골어 관용어와 기본의 대조 방법으로 대조를 했다. 대조한 결과 A유형의 의미와 표현이 비슷한 관용어 18개, B유형의 의미는 비슷하며 표현이 일부분 다른 관용어 42개, C유형의 의미는 비슷한데 표현이 전혀 다른 관용어 16개, 마지막으로 D유형의 한국어에만 있는 관용어 23개를 밝혔다. 다음으로 각 유형의 대조 교육 방법과 난이도를 살펴보았다. A유형의 의미와 표현이 유사한 관

용어는 난이도가 가장 낮은 관용어라서 학습하기 쉬운 관용어였다. B유형의 관용어는 의미가 비슷한데 표현이 일부분 다른 관용어로서 난이도가 높은 관용어이다. 마지막으로 C유형의 관용어는 의미가 비슷하며 표현이 전혀 다르고 난이도가 가장 높은 관용어로 예측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항목의 관용어를 의미 이해에 초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정확한 이해를 목적으로 학습을 진행하고 다음으로 적절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본 연구는 한국어 관용어를 머리 부위 중심으로만 하다 보니 또 다른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관용어들이 목록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 또한 외국인들이 학습하기 어려운 D유형의 관용어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연구의 한계점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필요며, 몽골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더 많은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위규(1999). 「우리 말 관용표현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위규(1990). 「관용표현의 개념과 성립요건」. 한글 학회 9호.
- 강현화(2004). 「한국어 회화에 나타난 어휘 분석」. 『비교문화연구』 8,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 김종택(1971). 「이디엄(idiom)연구」. 『어문학25』, 한국어문학회.
- 김문창(2003). 「한국어 관용표현 연구 약사」. 『한국어 의미학』, 한국어 의미학
회.
- 김애진(2009). 「일본어권 한국인 학습자를 위한 관용어 교육」. 한양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김영철(2000). 「국어 관용어에 관한 고찰 : 의미적 특성과 도상성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35, 국어문학회.
- 김진해(2003). 「관용어의 직설의미와 관용의미의 관계연구」. 『한국어의미학』 13,
한국어의미학회.
- 김혜숙(1993) 「익은말의 용어 및 개념 규정」. 동국어문논집제집.
- 누리갈리에바 아이굴(2008). 「한국어 러시아어 관용구 비교」. 대구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문금현(1996). 「국어의 관용표현 연구」. 태학사.
- 문금현(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어 교육 연구」. 『이중언어학』 제15
호 이중언어학회.
- 바양산톨(2008). 「한-몽 신체관련 속담 비교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순(1985). 「관용어에 대하여」. 『국어교육』 53.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박진수(1985). 「국어관용어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진호(2003). 「관용표현의 통사론과 의미론」. 『국어학』, 국어학회.
- 송현아(2008). 「몽골인을 위한 한국어 관용어 교육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
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혜인(2010).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어 교육 방안」. 한양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 안경화(2007). 『한국어교육의 연구』. 한국문화사.
- 안연희(2005). 「국어 관용어 지도」.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앵흐사를(2003). 「한국어와 몽골어의 신체관련 관용어의 대조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왕배우(2009). 「한국어의 머리부위 신체 관용어」.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왕지화(2008). 「한·중 신체관련 관용 표현 대조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선미(2007).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국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자(1991). 「인체어 ‘임’의 의미고찰」.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어문논집 6,7호
- 이양금(2010). 「대조를 통한 한국어 관용어 교육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연니(2011). 「한-일 신체어휘 관용어의 비교 연구」. 선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춘(2010). 「관용구를 활용한 문화교육 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주행(2011). 『알기 쉬운 한국어 문학회』. 역락
- 장미(2012).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신체 관용어 교육 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张婷婷 (2010).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교육의 수준별 목록 선정 방법」. 대불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혜영(1997).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어 교육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호정(2007). 『통역·번역의 이해』. 한국문화사
- 조뢰(2011).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관용어 교육 방안」.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경미(2008). 「20세기 초기 국어의 관용 표현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경봉(1993). 「국어 관용어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경봉(2000). 「관용어의 구성형식과 의미 구조」. 『한국언어문학』 45권, 한국언

어문학회.

최권진·정혜령(2010). 「매체 자료를 활용한 한국어 관용어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문화학』 7. 국제언어문화학회.

최혜령(2007).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 지도방안」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형재연(2010).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 표현 교육 방안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홍미량(1990). 「국어 관용어의 의미 구조 연구」. 『이화교육논총』 1,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황수미(1994). 「국어관용어의 의미론적 교찰」.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정아(2006). 「한국어 관용어와 관용표현의 관계」. 『한국언어문화학』 3-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사전]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 국어대사전』. 두산동아

박영준, 최경봉(1995). 『한국어 관용어 사전』. 태학사

빠산자브라바, 최기호(2004). 『한국어와 몽골어의 관용어 대조사전』. 국학자료원.

신기철, 신용철(1992). 『새 우리말 큰 사전』. 삼성출판사

이희승(1994).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이희승(1996).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한글학회(1992). 『우리말 큰 사전』. 어문각

허웅, 박지홍(1971). 『국어국문학』, 일지사

Монгол улсын их сургууль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тэнхим(2006) *Солонгос монгол толь бичиг* 몽골국립대학교. 『몽골어-한국어 사전』. Монгол улсын их сургууль

Улаанбаатар их сургууль(2010).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толь бичиг* 『몽·한 사전』. 한국학연구소 사전편찬

위원회.

Akim, G.(2000) *МОНГОЛ ӨВӨРМӨЦ ХЭЛЦИЙН ТОВЧ ТАЙЛ
БАРТОЛЬ*

Akim, G.(2012). *МОНГОЛ ӨВӨРМӨЦ ХЭЛЦИЙН ТОВЧ ТАЙЛ
БАРТОЛЬ*

Tsevel, Ya.(제3판)(1966). *МОНГОЛ ХЭЛНИЙ ТАЙЛБАРТОЛЬ*

Д. Бадамдорж(1997). *МОНГОЛ ХЭЛНИЙ ҮГИН САН СУДЛАЛ*

Ц. Сүхбаатар(2002). *МОНГОЛ ХЭЛНИЙ НАЙРУУЛГА ЗҮЙ*

[한국어 교재]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 교육부 (2000). 『한국어 1-6』. 경희대학교
출판국

연세대학교 한국어 학당(2007). 『한국어 1-6』. 연세대학교 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부(1998). 『말이 트이는 한국어1-5』. 이화여자대
학교출판부

김선정, 김현자, 김경화, 류선영(2007). 『살아있는 한국어 관용어 편』. 랭귀
지플러스

김정화, 최은규(2002). 『한국어 속담 100, 한국어 관용어 100』. 국제교육진
흥원

정호정(2007). 『통역·번역의 이해』. 한국문학사

국제한국어교육학회(2010). 『한국어 교수법』. 형설출판사 편집부

문명신, 양윤정, 송정화(2011). 『현장중심의 한국어 교수법』. 서울 랭귀지
플러스

ABSTRACT

The research on comparing Korean and Mongolian idiomatic
expressions

(Idiomatic expressions related to parts of head)

–Korean language education–

Batbayar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e main goal of this research work is to compare Korean and Mongolian idiomatic expressions that related to parts of head, to reveal their same and different features and create fruitful methods to teach Korean idiomatic expressions to Mongolian students.

Idiomatic expressions contain culture and history of its country and they have been used in regular standard form. Idiomatic expressions are expressions that words that are in them don't express their own meanings, but they together express totally different meaning and words are not replaced with other words. Native Korean speakers learn so many idiomatic expressions from their everyday lives and they use idiomatic expressions in

their speaking many times to express their opinions clearly to other people. But because foreign students can't learn this way, they often have problems with communicating with others. In order to communicate with others, people need to understand meaning of words in that language fully and use right words. Therefore there is a need of research on idiomatic expressions and develop teaching methods for students who learn idiomatic expressions in languages. Based on those needs, this research work has been done. **Chapter 1** talks about the goal and needs that caused this research work to be done and also about analyses on related research works that had been done before. **Chapter 2** talks about role of idiomatic expressions in Korean language, their general concept and characteristics. Definitions by specialists who did research works on idiomatic expressions were different, but in some ways their definitions were same. This research material contains different views and concepts about idiomatic expressions that were been researched before and based on concept that people agreed on together, general understanding and characteristic are reflected in this material.

Idiomatic expressions contain culture and history of its country and they have been used in regular standard form. Idiomatic expression is consisting of two or more words and words in it don't express their own individual meanings, but they together express totally new meaning because they are pair words. Meaning and grammatical structure of idiomatic expressions were being researched separately. Because of wanting to compare idiomatic expressions of two different countries, analysis was done on structures of idiomatic expressions in two languages.

Chapter 3 shows comparison of Korean and Mongolian idiomatic expressions and methods how to teach them. Three Korean language study books and two books related to idiomatic expressions were chosen and 98 idiomatic expressions were chosen from those books have listed.

Research work was taken on those idiomatic expressions by comparing them to Mongolian idiomatic expressions and those idiomatic expressions are

divided into groups A, B, C and D because of the result of research work on them.

- Idiomatic expressions that are in the group A are easy to teach because idiomatic expressions from both languages match in meaning and expression.
- Idiomatic expressions that are in the group B have same meanings, but because of their expression are little different, they are little bit difficult to teach them to students if compare to group A.
- Idiomatic expressions that are in the group C have same meaning, but their expressions are totally different. It becomes more difficult to teach idiomatic expressions if expressions are more and more different.

When teachers teach idiomatic expressions that are in the group A, as soon as teachers compare them to idiomatic expressions that are in students' own language, they understand them right away. But because idiomatic expressions that are in the group C reflects cultures of that language, it is not that easy to teach them to students. Based on the research work, I have developed the methods to teach idiomatic expressions that are groups above and developed lesson plan that can be used to teach them to students.

- Idiomatic expressions that are in the group D are idiomatic expressions that are only in Korean language and because there is no any similar idiomatic expression in Mongolian to compare, I didn't do research on it much to develop to teach them to students.

The weak side of this research work is I have picked idiomatic expressions that are only related to parts of head and other idiomatic expressions that are used in everyday speech are not used in it. Also I have not do research on idiomatic expressions that are difficult for Mongolian students to learn and more detailed research works are needed in this area in order to improve teaching Korean language.

【key words】 idiom, mongolian idiom, Idiomatic expressions related to parts of head

х у р а а н г у й

С о л о н г о с , м о н г о л х э л н и й ө в ө р м ө ц
х э л ц ү ү д и й н х а р ь ц у у л с а н
с у д а л г а а

(Толгойн эд эрхтэнтэй холбоотой өвөрмөц
хэлцүүд)

– С о л о н г о с х э л н и й б о л о в с р о л ы н т а л а а с –

Б а т б а я р
С о л о н г о с с у д л а л ы н т э н х и м
Х а н с о н и х с у р г у у л ь м а г и с т р а н т у р

Солонгос болон монгол хэлний толгойн эд эрхтэнтэй холбоотой өвөрмөц хэлцийг харьцуулан, ижил төстэй болон ялгаатай талыг олж илрүүлэн, монгол оюутнуудад солонгос өвөрмөц хэлцийг заахад зориулсан илүү үр дүнтэй, харьцуулалтан дээр тулгуурласан заах аргыг олж нээхэд энэхүү судалгааны зорилго оршино.

Өвөрмөц хэлц нь тухайн улсыхаа түүх соёлыг өөртөө агуулсан байдаг бөгөөд эрт дээр үеэс хэвшмэл хэлбэрээр хэрэглэгдэж ирсэн байдаг. Хэлцийг бүрдүүлж байгаа үгс нь өөрсдийн анхдагч утгаар бус, холбоо үгийн түвшинд гуравдагч утгыг илэрхийлж байдаг тогтвортой холбоо үгсийг өвөрмөц хэлц гэнэ. Унаган солонгос хэлтэй хүмүүс өдөр тутмын амьдралаасаа маш олон өвөрмөц хэлцийг сурч авдаг ба өөрсдийн санаа бодлыг бусад хүмүүст илүү тодорхой хүргэхийн тулд өвөрмөц хэлцийг яриандаа өргөнөөр хэ

рэглэдэг. Гэвч гадаад оюутнуудын хувьд ингэж сурч чаддаггүйн улмаас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ын туйлын зорилго болох харилцан ойлголцох тал дээр асуудал үүсдэг. Хүмүүстэй саадгүй ойлголцохын тулд сурч буй хэлнийхээ үгийн утгыг бүрэн ойлгож, үгийг зөв сонгон хэрэглэх шаардлагатай байдаг. Тиймээс хэлц үгийн утгыг тухайн хэлийг сурч байгаа оюутнуудад ойлгуулахын тулд судалгаа хийж, оновчтой заах аргыг боловсруулах шаардлагатай юм.

Эдгээр хэрэгцээ шаардлага дээр үндэслэн энэхүү судалгааг хийсэн бөгөөд 1-р бүлгийн оршил хэсэгт судалгааны зорилго, судалгаа хийгдэх болсон хэрэгцээ шаардлага болон энэ тал дээр урьд өмнө нь хийгдэж байсан судалгаануудад дүн шинжилгээ хийж, үр дүнг нь тусгасан ба 2-р бүлэгт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д өвөрмөц хэлцийн гүйцэтгэх үүрэг, өвөрмөц хэлцийн талаарх ерөнхий ойлголт болон онцлогийн талаар тоочин оруулсан билээ. Өвөрмөц хэлцийг судалж, тодорхойлсон эрдэмтдийн тодорхойлолт өөр өөр байсан хэдий ч тэдний тодорхойлолтуудад ижил төстэй зүйлүүд ч харагдаж байсан. Энэхүү судалгааны материалд өмнө нь хийгдэж байсан судалгаануудад тусгагдсан өвөрмөц хэлцийн талаарх өөр өөр үзэл бодол, ойлголтуудыг товч нэгтгэн оруулж, тэр дундаас нийтэд хүлээн зөвшөөрөгдсөн үзэл бодол дээр тулгуурлан өвөрмөц хэлцийн талаарх ерөнхий ойлголт болон онцлогийг нь гарган бичсэн билээ.

Өвөрмөц хэлц нь эрт дээр үеэс хэвшмэ

л хэлбэрээр хэрэглэгдэж ирсэн ба тухайн улсынхаа түүх соёлыг агуулсан тогтвортой нийлэмж хэллэг юм. Хоёр ба түүнээс дээш үгнээс бүрддэг бөгөөд хэлцэд орсон үгнүүд өөрийн бие даасан салангид утгыг бус, холбоо үгийн түвшинд гуравдагч шинэ утгийг илэрхийлэн гаргадаг. Өвөрмөц хэлцийн утгийн болон хэлзүйн онцлогийг тус тусад нь судлан авч үзсэн билээ. Мөн хоёр орны өвөрмөц хэлцийг харьцуулах үүднээс солонгос болон монгол хэлний өвөрмөц хэлцийн бүтцийг задлан харьцуулан жишиж үзсэн юм.

3-р бүлэгт солонгос болон монгол хэлний өвөрмөц хэлцийг харьцуулан харуулж, харьцуулан заах аргыг тусгаж өгсөн билээ. Үүний тулд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ах бичгүүдийн дундаас 3 сурах бичгийг, мөн өвөрмөц хэлцтэй холбоотой номнуудаас 2-ыг сонгон авч, толгойн эд эрхтэнтэй холбоотой өвөрмөц хэлцийг уг номнуудаас нэг бүрчлэн түүж, 98 өвөрмөц хэлцийг жагсаан оруулав.

Эдгээр түүж авсан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өвөрмөц хэлцүүдээ монгол хэлний өвөрмөц хэлцүүдтэй харьцуулж, А, В, С, D бүлэгт ангилан хуваав.

- А бүлэгт багтах өвөрмөц хэлцүүд нь хоёр орны өвөрмөц хэлцүүдийг харьцуулахад утга болон илэрхийлэл нь ижил байдаг учраас заахад хялбар юм.
- В бүлэгт багтах өвөрмөц хэлцүүд нь утга ижил боловч илэрхийллийн нэг хэсэг нь өөр учраас өмнөх бүлгийн өвөрмөц хэлцүүдийг бодвол заахад бага зэрэг хүндрэлтэй юм.

- С бүлэгт багтах өвөрмөц хэлцүүд нь утга ижил ч илэрхийлэл нь шал өөр өвөрмөц хэлцүүд юм. Илэрхийлэл өөр болох тусам тус өвөрмөц хэлцийг заахад хүндрэл үүсдэг.

А бүлэгт багтах өвөрмөц хэлцийг заахдаа өөрийнх нь орны өвөрмөц хэлцтэй харьцуулах төдийд л тухайн өвөрмөц хэлцийг оюутнуудад ойлгуулах боломжтой боловч С бүлгийн өвөрмөц хэлц нь тухайн улсын соёлыг өөртөө агуулсан байдаг учир энэ бүлгийн өвөрмөц хэлцийг заахад тийм ч хялбар биш байдаг. Судалгаан дээр үндэслэн дээр дурдсан бүлэгт багтах өвөрмөц хэлцүүдийг заахад тохиромжтой заах аргыг ирэлхийлэн хайж, хичээлд шууд ашиглах боломжтой конспектийг хийсэн юм.

- D бүлэгт багтах өвөрмөц хэлцүүд нь зөвхөн солонгос хэлэнд л байдаг өвөрмөц хэлцүүд юм. Тиймээс энэ бүлгийн өвөрмөц хэлцийг өөрийн хэлний өвөрмөц хэлцтэй харьцуулан заах боломжгүй, мөн энэ судалгааны зорилготой бүрэн нийцэхгүй учраас энэхүү бүлэгт багтах өвөрмөц хэлцийн заах аргыг энэ удаад онцгойлон авч үзсэнгүй.

Уг судалгааны дутагдалтай тал нь зөвхөн толгойн эд эрхтэнтэй холбоотой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өвөрмөц хэлцүүдийг сонгон авсан учраас өдөр тутмын амьдралд өргөнөөр хэрэглэгддэг бусад өвөрмөц хэлцүүдийг хамруулж чадаагүй явдал юм. Мөн монгол оюутнуудад сурахад хүндрэлтэй D бүлэгт багтах өвөрмөц хэлцүүдийг заах аргыг тусгайлан судлаагүй бөгөөд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галт

ын чанарыг сайжруулахын тулд иймэрхүү зүйлүүд дээр нарийн судалгаа хийх шаардлагатай юм.

【Түлхүүр үг】 Толгойн эд эрхтэнтэй холбоотой өвөрмөц хэлц,